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36415

2008年2月 教育學碩士學位論文

韓國語와 日本語의 慣用句 比較研究

尹 泳 信

2008年 2月
教育學碩士(日本語教育)學位論文

韓國語와 日本語의 慣用句 比較研究

- 身體語彙 慣用句를 中心으로 -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日本語教育專攻

尹 泳 信

韓國語와 日本語의 慣用句 比較研究

- 身體語彙 慣用句를 中心으로 -

A Comparative Study of

Korean and Japanese Idioms

- Focusing on Physical Vocabulary Idioms -

*2008*年 2月 日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日本語敎育專攻

尹 泳 信

韓國語와 日本語의 慣用句 比較研究

指導教授　　金　　仁　　炫

이 論文을 教育學碩士(日本語教育專攻)學位
請求論文으로 提出함.

*2007*年　*10*月　日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日本語教育專攻

尹　　泳　　信

尹泳信의 敎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朝鮮大學校 敎 授 박 청 국 印

審査委員 朝鮮大學校 敎 授 김 인 현 印

審査委員 朝鮮大學校 副敎授 정 의 상 印

*2007*年 *12*月 日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目　次

表目次 ····· iii

ABSTRACT ····· vi

第1章. 序 論 ····· 1

1.1. 硏究目的 ····· 1

1.2. 硏究方法 ····· 2

第2章. 慣用句의 先行연구 ····· 4

2.1. 韓國語 慣用句의 範圍와 分類 ····· 5

2.2. 日本語 慣用句의 範圍와 分類 ····· 7

2.3. 身體 慣用句 範圍의 分類 ····· 9

第3章. 身體 慣用句의 韓・日 比較分析 ····· 12

3.1. 手足部 ····· 12

3.1.1. 손（手）····· 12

3.1.2. 발（足）····· 16

3.2. 頭部 ····· 18

3.2.1. 눈（目）····· 18

3.2.2. 코（鼻）····· 22

3.2.3. 입（口）····· 25

3.2.4. 귀（耳）····· 29

3.2.5. 얼굴, 낯（顔）····· 32

3.2.6. 머리（頭）····· 35

3.2.7. 목, 고개（首）····· 38

3.3 胴體部 ····· 41

3.3.1. 배（腹）····· 41

3.3.2. 가슴（胸）····· 44

3.3.3. 허리（腰）····· 47

第4章. 結 論 ····· 50

參考文獻 ····· 54

表 目 次

【表1】손(手) — <韓・日 兩國語가 同一한 慣用句> ····· 12

【表2】손(手) — <韓・日 兩國語가 同一하지 않은 慣用句> ····· 13

【表3】손(手) — <韓國語에만 있는 慣用句> ····· 14

【表4】손(手) — <日本語에만 있는 慣用句> ····· 15

【表5】발(足) — <韓・日 兩國語가 同一한 慣用句> ····· 16

【表6】발(足) — <韓・日 兩國語가 同一하지 않은 慣用句> ····· 16

【表7】발(足) — <韓國語에만 있는 慣用句> ····· 17

【表8】발(足) — <日本語에만 있는 慣用句> ····· 18

【表9】눈(目) — <韓・日 兩國語가 同一한 慣用句> ····· 19

【表10】눈(目) — <韓・日 兩國語가 同一하지 않은 慣用句> ····· 20

【表11】눈(目) — <韓國語에만 있는 慣用句> ····· 21

【表12】눈(目) — <日本語에만 있는 慣用句> ····· 21

【表13】코(鼻) — <韓・日 兩國語가 同一한 慣用句> ····· 23

【表14】코(鼻) — <韓・日 兩國語가 同一하지 않은 慣用句> ····· 23

【表15】코(鼻) — <韓國語에만 있는 慣用句> ····· 24

【表16】코(鼻) — <日本語에만 있는 慣用句> ····· 25

【表17】입(口) — <韓・日 兩國語가 同一한 慣用句> ····· 26

【表18】입(口) — <韓・日 兩國語가 同一하지 않은 慣用句> ····· 26

【表19】입(口) — <韓國語에만 있는 慣用句> ····· 27

【表20】입(口) — <日本語에만 있는 慣用句> ····· 28

【表21】귀(耳) — <韓・日 兩國語가 同一한 慣用句> ····· 29

【表22】귀(耳) — <韓・日 兩國語가 同一하지 않은 慣用句> ····· 30

【表23】귀(耳) — <韓國語에만 있는 慣用句> ····· 30

【表24】귀(耳) — <日本語에만 있는 慣用句> ····· 31

【表25】얼굴・낯(顔) — <韓・日 兩國語가 同一한 慣用句> ····· 32

【表26】얼굴・낯(顔) — <韓・日 兩國語가 同一하지 않은 慣用句> ····· 33

【表27】얼굴・낯(顔) — <韓國語에만 있는 慣用句> ····· 34

【表28】얼굴・낯(顔) — <日本語에만 있는 慣用句> ····· 34

【表29】머리(頭) — <韓・日 兩國語가 同一한 慣用句> ····· 35

【表30】머리(頭) — <韓・日 兩國語가 同一하지 않은 慣用句> ····· 36

【表31】머리(頭) — <韓國語에만 있는 慣用句> ····· 37

【表32】머리(頭) — <日本語에만 있는 慣用句> ····· 37

【表33】목(首) — <韓・日 兩國語가 同一한 慣用句> ····· 38

【表34】목(首) — <韓・日 兩國語가 同一하지 않은 慣用句> ····· 39

【表35】목(首) — <韓國語에만 있는 慣用句> ····· 40

【表36】목(首) — <日本語에만 있는 慣用句> ····· 40

【表37】배(腹) — <韓・日 兩國語가 同一한 慣用句> ····· 41

【表38】배(腹) — <韓・日 兩國語가 同一하지 않은 慣用句> ····· 42

【表39】배(腹) — <韓國語에만 있는 慣用句> ····· 43

【表40】배(腹) — <日本語에만 있는 慣用句> ····· 43

【表41】가슴(胸) — <韓・日 兩國語가 同一한 慣用句> ····· 44

【表42】가슴(胸) — <韓・日 兩國語가 同一하지 않은 慣用句> ····· 45

【表43】가슴(胸) — <韓國語에만 있는 慣用句> ····· 45

【表44】가슴(胸) — <日本語에만 있는 慣用句> ····· 46

【表45】허리(腰) — <韓・日 兩國語가 同一한 慣用句> ····· 47

【表46】허리(腰) — <韓・日 兩國語가 同一하지 않은 慣用句> ····· 48

【表47】허리(腰) — <韓國語에만 있는 慣用句> ····· 48

【表48】허리(腰) — <日本語에만 있는 慣用句> ····· 49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Korean and Japanese Idioms

- Centering on the Idioms on Bodies -

Young-Sin Yun
Advisor : Prof. In-hyun Kim, Ph.D.
Major in Japanese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It can be said that idioms are a crystal that reflects nationality generated through daily living and contain abundant artistic and symbolic nature. So, it is very difficult in learning of Japanese to learn the idioms that have different meanings from grammatical rules or those the words themselves have. In particular, it is believed it is very valuable to conduct a comparative study on common and different things in Korean and Japanese bodily idioms which are about 1/4 of the entire idioms.

This study summarizes definition and features of idioms centering on the previous studies of many scholars for examination of bodily idioms: combination of more than two words or phrases is habitually used, meaning a distinctive meaning; they are categorized into general idioms, an

onomatapoeia, mimetic words, proverbs, figurative words and slang words; and for its features, combination of components is distinctive and irregular(ungrammatical), they are one word themselves and ready-made.

For the study, bodily parts that are the most frequently used in actual life are categorized into hands and legs, the head (eyes, nose, ears. face, head and marrow), and body (belly, chest and back). the bodily idioms are sub-divided into same idioms in Korean and Japanese, different idioms in both countries, idioms used only in Korea and those in Japan, which are analysed centering on compositional and semantic differences. Korean and Japanese belong to the same linguistic zone and began with very similar grammatical systems, but as seen in the table with four codes, some of them are used in the same meaning while others are not used in that way. Korean idioms are direct, bald, strong, and honest while most of the Japanese idioms are indirect, vague, deviate and unstimulating. Thus, beginning from bodily functions, bodily idioms have been expanded in various concepts and used in daily conversation very naturally, but as they are bonded to the history, culture, society, life style, nationality and religion of the country, they have figurative and implicit meaning.

This study examines bodily idioms of Korean and Japan based on bodily words, compositional styles and words used, focusing on compositional styles and meaning. This study will help leaners to be competent speakers and provide helpful learning and teaching methods on the Japanese idioms and proverbs for them even though it is not sufficient.

第 1 章. 序　論

1.1. 硏究目的

現代에 들어 世界化에 발맞추어 나가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외국어학습에 心血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지리적인 근접성과 東아시아 문화권에 屬해있고 기초 문화의 유사성과 정서적 동질감을 느끼고 있는 日本語의 比重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 최근 젊은 學生들은 日本의 전자오락이나 컴퓨터게임, 日本 연예인들에 대한 지대한 關心으로 인해 日本語를 학습하는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데 이러한 日本語를 습득하는 過程에 있어서, 처음에는 語順이 거의 비슷하고 한자 문화권인 이유로 語彙나 文法 등의 言語的인 知識만으로 쉽게 접근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학습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兩國語간의 유사성이 오히려 함정이 되기도 한다. 이는 같은 한자어라고 해서 意味의 차이는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직역해 버림으로 인한 오류와 실수를 초래하기에 이르게 된다. 이처럼 日本語의 표면적인 形態가 韓國語와 비슷하다고 해서 모든 意味가 同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慣用句는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母國語인 境遇에는 인지하지 못하고 지내는 境遇가 많지만, 外國語 학습자에게는 그 뜻을 正確히 理解하기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한 나라의 언어를 완벽하게 理解하고, 자유자재로 구사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민족성이나 문화적인 배경, 역사, 습관, 풍속, 종교 그리고, 그 민족의 정신세계까지도 알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런 意味에서, 日本語를 학습대상으로 할 때, 日本人들이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 慣用句에 대한 理解는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慣用句에는 하나하나의 單語가 나타내는 본래의 意味가 직접 관계된 것과 단어 본래의 意味가 比喩的으로 사용된 것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특히, 韓・日 慣用句의 소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身體語彙는 다른 單語와

결합하여, 그 部分의 상태와 활동을 暗示的・比喩的으로 包含시키고 있는 境遇가 많다. 예를 들어 '顔が広い'라는 表現은 물론 얼굴이 넓은 사람을 지칭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境遇 慣用的으로 '발이 넓다(사교의 범위가 넓다, 아는 사람이 많다)'의 意味로 사용된다.

이 때문에 日本語 학습 중에서도 身體 慣用句란 日本의 독특한 생활양식, 전통문화, 민족성, 역사, 정신세계 등을 충분히 내포함에 따라 生成된 表現이기에 이를 습득함으로써 언어의 能力을 높일 수 있고, 그와 동시에 그 나라의 역사나 문화까지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는 점에서 硏究의 가치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硏究에서는 말의 語順이 비슷하고, 같은 한자 문화권에 속하며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韓・日 兩國의 身體 慣用句의 意味論的 特徵과 共通點 및 差異點에 초점을 맞춰서 比較・分析함으로써 언어의 知識을 풍부하게 하고 理解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1.2. 硏究方法

上記의 韓國과 日本의 身體 慣用句를 比較・分析 하기 위해 먼저, 現在까지 硏究되어 출간된 국내・외의 慣用句에 關한 辭典(韓日, 日韓)類・慣用句辭典・先行硏究論文・日本語 학습지 등을 통해 兩國의 身體 慣用句를 수집한뒤 身體語彙 慣用句의 理解를 돕기 위하여 先行硏究된 여러 견해를 통해 韓國과 日本 兩國의 慣用句에 대한 개념을 정리한 뒤 각각의 特徵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본 硏究의 대상이 되는 身體 慣用句의 範圍 및 分類를 하여 일상생활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身體慣用句의 身體部位를 크게 手足部(手・足), 頭部(目・鼻・口・顔・頭・耳・首), 胴體部(腹・胸・腰), 로 나누고, 작게는 耳(귀)・目(눈)・鼻(코) ・口(입) ・顔(얼굴)・頭(머리)・首(목)・腹(배)・胸(가슴)・腰(허리)・手(손)・足(발) 등의 12部位로 나눈 뒤 構成形式 및 意味에 焦點을 두어 다음과 같이 分類해 對照해 본다.

(1) <韓・日 兩國語가 同一한 慣用句> — 「頭をかく(머리를 긁다)」처럼 서로 身體語彙뿐 아니라 사용된 單語가 같으며 構成形式 및 全體적인 意味도 같은 慣用句를 말한다.

(2) <韓・日 兩國語가 同一하지 않은 慣用句> — 「手がかかる(손이 가다)」처럼 서로 身體語彙와 構成形式은 같으나 사용된 單語가 다르고 全體的인 意味도 다른 慣用句와, 「目と鼻の先(엎어지면 코 닿을 데)」처럼 構成形式은 다르나 意味가 같은 것 즉, 서로 意味는 같으나 身體語彙만 同一하고 身體語彙를 제외한 部分은 다른 慣用句도 포함을 시켰다.

(3) <韓國語에만 있는 慣用句> — 「머리에 피도 안 마르다(어리다)」처럼 韓國語에만 있고 日本語에는 없는 慣用句를 말한다.

(4) <日本語에만 있는 慣用句> — 「手をつくす(온갖 수단을 다하다)」처럼 日本語에만 있는 慣用句를 말한다.

이렇게 身體語彙와 構成形式을 基準으로 네 가지 項目別로 나눈 뒤 각 項에 該當하는 部位의 辭典的 意味와 慣用句로 사용되었을 때의 意味를 比較・對照해 본다.

第2章. 慣用句의 先行研究

慣用句에 關한 韓・日 兩國에서의 研究는 1970년대부터 시작 되어 왔지만, 韓・日 兩國의 比較・對照研究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80년대부터라 할 수 있다.

林八龍은 「連語成句」를 中心으로 現代 日本語및 韓國語의 慣用表現을 考察했고, 韓・日 兩國의 身體語彙 慣用句를 比較・對照하기 위한 기초 자료 研究도 하였다.[1)]

1990년대에 들어 兩國의 慣用句에 대한 比較研究가 활발해 졌고, 그중 郭大基는 日本語教育에 있어서의 慣用句에 대해 研究하였는데, 주로 日本學者인 白石大二와 宮地裕 두 學者들의 諸理論에 중점을 두어 日本語의 品詞別 特徵과 語彙的 特徵, 形式上의 特徵을 언급하였으나, 이 研究를 어떻게 適用할 것인가 하는 것은 研究課題로 남겨두고 있다[2)].

2000년도에 들어와서도 韓・日 慣用句에 대한 研究는 계속되고 있으나, 역시 身體語彙 慣用句 比較가 대부분이다.

도쿠나가 이즈미는 韓國語와 日本語의 身體語彙 慣用句를 對照해서 두 언어間에 보이는 共通點과 差異點을 살펴보고, 慣用句 중에서도 感情을 나타내는 表現을 中心으로, 韓國語와 日本語의 慣用句 사이에 어떠한 對應 關係가 있는지 感情分類別로 나타내었다.[3)]

劉香珉은, 韓國의 日本語 학습자에게 教育을 시키는데 있어서 日本 小學校 國語教科書와, 우리나라 高等學校 教科書(第6次 教育課程)을 中心으로 俗談과 慣用句를 比較・分析 하였으나 이 研究도 資料를 分析해 羅列하는 데 置重을 둔 나머지, 뚜렷한 改善方案이 明確하지가 않다.[4)]

---

1) 林八龍,「現代 日本語및 韓國語의 慣用表現 考」『日本文化研究』1輯, 韓國外大日本研究所, 1997

2) 郭大基,「日本語教育における慣用句」『東萊女子專門大論文集』13輯, 東萊女子專門大, 1994

3) 도쿠나가 이즈미, 「韓國語와 日本語의 身體語彙 慣用句 對照 研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4) 劉香珉,「日本語 教育에서의 慣用句와 俗談에 대한 研究」,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尹召媛은 身體語彙 慣用句중에서도 頭部를 중심으로 比較 했으며, 身體語彙 慣用句가 각각 어떤 意味로 쓰였는지 分析한 후, 기능. 개념적 표현. 감정 표현의 3축으로 다시 細部하여 比較하였다는데 특이할만한 사항이라 할 수 있겠다.[5)]

以上을 整理해보면 慣用句에 관한 硏究는 兩國의 身體語彙에 대한 比較・對照硏究가 주를 이루었고 드물게 俗談 및 日本語敎育에 관한 硏究도 보였다.

2.1. 韓國語 慣用句의 範圍 및 分類

慣用句란, 생활 속에서 자주 쓰이기는 하지만 序論에서도 언급했듯이 그 單語 構成成分의 번역만으로는 그 뜻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다. 언어를 습득하는 初期에는 重要性이 떨어지기는 하나 학습과정이 늘어날수록 慣用句학습이 强調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慣用句에 대한 개념은 한 單語로 단정짓기는 어려우며, 그 범위 또한 매우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다. 韓國의 여러 學者들이 硏究한 慣用句의 定義와 特徵은 다음과 같다.

먼저 慣用句의 定義를 先行되어진 다양한 硏究로부터 요약해보면, 慣用句는 넓은 意味로 다른 언어와의 相對的인 특색에 기초한 한 언어의 全體系를 가리키지만 보통은 協議로 어떤 언어 內部의 特有한 表現 方式만을 그 언어의 慣用語 혹은 慣用句라고 하며 形態, 意味, 慣用的으로 쓰이는 故事成語로 3分類 할 수 있고[6)], 語彙複合體가 文章 내에서 하나의 構成成分으로 機能하는 언어 單位를 가리키며, 이때 慣用語의 뜻은 構成語彙의 個別的 뜻을 합해도 알 수 없다[7)]고 한다. 또, 慣用語를 '익힘말'이라고도 하여 韓國 사람들이 언어생활습득에서 얻어진 평면적 뜻을 지닌 단순 語彙인 '익힘말'이 아닌, 意味素의 表面構造만으로 理解될 수 없고, 또 다른 뜻으로 表現되어 韓國 언어사회에서만 익혀서 비로소 통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하였고[8)], '熟語'라는 用語를 사용하여 '언어의 全體的인 規則性에 비추어 볼 때, 非正常

5) 尹召媛, 「韓・日 身體語彙 慣用句의 比較分析 」, 한남大學校 敎育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2004
6) 서울大東亞文化硏究所,『國語國文學辭典』, 신구문화사, 1989
7) 박영준・최경봉,『관용어 사전』, 태학사, 1996
8) 黃希榮, 「韓國 慣用句 硏究」, 『省谷論叢』9집, 1978

的이지만 慣習上 통용되는 表現으로 隱喩表現의 句節 또는 節[9]'이라고도 定義 되었다.

이러한 韓國語 慣用句를 許錫(1989)[10]은 다음과 같이 特徵지었다.

1) 慣用句의 意味는 非合成的이다.

한 언어形式의 意味는 이를 構成하고 있는 要素들의 意味의 합으로 나타내지만, 慣用句의 意味는 그 構成要素가 지닌 意味의 합으로 規定할 수 없다. 즉, 慣用句의 構成要素들은 각기 獨自的인 意味를 갖지 못하고 이들이 緊密하게 結合하여 하나의 새로운 意味를 形成한다.

例) a. 아내는 부엌에서 바가지를 긁었다. (意味의 合)

b. 아내는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었다. (慣用句 → '잔소리를 하다')

2) 慣用句는 形態의 固定性를 띤다.

嚴密한 意味에서 客觀的인 意味나, 感性的인 價値를 조금도 바꾸지 않고 어떤 文脈에서 置換이 가능한 完全한 同義語, 또는 同意的인 表現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慣用句를 다른 언어表現으로 代置해 쓴다면 慣用句가 가진 表現價値를 잃게 된다.

例) a. 아픈 데를 어루만지다. (慣用句 ×)

b. 아픈 데를 찌르다. (慣用句 意味 → '弱點을 言及하다')

3) 慣用句는 制限된 수의 變異性을 갖는다. 즉, 形態的 變異性이 存在한다.

① 同意的 變異性

例) 손을 내밀다 → 손을 벌리다 (도움을 청하다)

② 反意的 變異性

例) 귀가 밝다 (聽力이 좋다) → 귀가 어둡다 (聽力이 나쁘다)

4) 慣用句가 包含된 完全한 文에서 慣用句의 構成要素가 倒置되면 官用意味를 잃는다.

例) 눈 뜬 장님 → 장님이 눈을 뜨다 (×)

5) 慣用句는 受動態가 不可能하다.

보통 他動詞句는 受動態로 바꿀 수 있지만, 大多數의 慣用句가 自動詞로서의 敍

9) 안경화, 「韓國語 熟語의 類型에 대한 分析的 硏究」, 서울大學校 碩士學位 論文, 1987
10) 許錫, 「韓國語 慣用句 硏究」, 仁荷大 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1989 pp.56-57

述語 機能을 하기 때문에 一般 自動詞와 마찬가지로 受動態를 만들 수 없다.

例) a. 눈을 감다 (죽다) → 눈이 감기다 (×)

b. 손을 쓰다 (措置를 취하다) → 손이 쓰이다 (×)

6) 慣用句는 그 構成要素인 名詞를 代名詞化 하면 慣用의 意味를 잃어버린다.

例) a. 수박 겉핥기 → 그것 겉핥기 (×)

b. 우물 안 개구리 → 우물 안 그것 (×)

2.2. 日本語 慣用句의 範圍 및 分類

日本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學者들에 의해 다양하게 日本語 慣用句의 定義와 特徵이 硏究되어 왔다.

宮地裕는 『慣用句の 意味と用法』에서 다음과 같이 定義하고 있다. 慣用句는 일반의 連語句보다 結合度가 높은 것이지만, 「格言, ことわざ」와 달라서 歷史的 社會的 價値觀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一般 連語句보다 結合度가 높은 것을 「連語成句的 慣用句」라고 부르고 또한 比較的 確實한 比喩的意味을 갖는 것을 「比喩的 慣用句」라 分類하였다.[11] 특히 宮地裕는 慣用句를 代表할 만한 類型的 表現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慣用句를 分類했으며, 白石大二(1977)는 한 언어의 慣用에 의해서 是認되고 있지만 대부분의境遇 文法的, 論理的인 意味와는 다른 意味를 가지고 있는 語法으로 인사말, 擬聲語들의 單語도 包含하여 넓은 意味로서의 慣用句라 하였다.[12]

村木新次郎[13]은 日本語 慣用句의 特徵을 다음과 같이 들었다.

1) 構成要素의 結合이 特殊하고 不規則(非文法的)하다.

構成要素와 全體사이에는 規則的인 關係가 存在하지 않는다. 즉, 構成要素와 慣用句 전체와의 關係는 自由로운 語結合으로 規則은 볼 수 없으며, 그 結合은 個別

---

11) 宮地裕, 『慣用句の意味と用法』, 明治書院, 1988 pp.238-242

12) 白石大二, 『国語慣用句辞典』, 東京堂出版, 1978 pp.71-82

13) 村木新次郎,「慣用句・機能動詞結合・自由な語結合」,『日本語学Vol.4-1』, 明治書院, 1985 pp.15-18

的이며 獨特하다.

例) a. 途中で道草をくって、くなった。 (한눈을 팔아서 - 慣用句(○))

b. 途中で夕飯をくって、くなった。(저녁을 먹어서 - 慣用句(×))

2) 意味의 固定이다.

여기서 '固定'이라고 하는 것은 意味上의 非分割性과 文法上의 制約으로서 內容과 樣式의 양쪽 側面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① 意味上의 非分割性 : 慣用句 전체의 意味를 要素・要素로 分解할 수 없다는 점에서 自由로운 語結合과 區別된다. 예를 들어, 「泡を食う : 놀라자빠지다」의 境遇 그 個別的인 單語 意味를 完全히 잃어버려 전체가 하나의 새로운 意味를 갖는다. 이것에 대해서「みそ汁を食う」와 같은 自由스러운 語結合에서는 전체의 意味가 각 單語의 意味를 基礎로 하여 이루어진다.

② 文法上의 制約 : 慣用句를 構成하는 要素 간의 結合의 强度를 말한다. 즉, 慣用句를 構成하고 있는 要素 사이에 다른 언어形式(補語나 副詞)의 挿入이 어렵고, 「口が重い」를 「重い口」처럼 用言과 體言의 位置를 바꿀 수 없고, 構成要素의 하나를 類義語와 對立語로 바꾸어 놓아도 전체가 비슷한 意味나 對立된 意味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③ 形態上의 制約 : 일부 慣用句에 대해서만 該當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あがきがとれない」「氣にくわない」와 같이 不定形으로만 사용되는 慣用句와 「後ろ髮をひかれる」「あっけにとられる」와 같이 受動의 形式으로만 사용 되는 것 등이 그것이다.

3) 慣用句는 그 自體가 하나의 單語이다.

形式的으로는 둘 以上의 結合體이지만, 意味的으로는 하나의 單語와 같이 語彙의 일개 要素에 지나지 않는다.

4) 慣用句는 旣製品性을 지니고 있다.

「旣製品性」이란 單語를 짜 맞추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미리 만들어지고 準備된 形態대로 언어活動에 利用한다는 것을 意味한다. 一般的인 單語結은 單語와 統語規則만 알고 있으면 만들 수 있지만, 慣用句는 그 전체를 알고 있지 않으면 사

용할 수가 없다.

2.3. 身體語彙 慣用句 範圍의 分類

身體語彙의 範圍는 外形的으로 나타나는 部分 즉 눈에 보이는 部分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 보다는 훨씬 더 幅 넓게 해석되고 있고 많은 學者들에 의해 다음과 같이 範圍가 分類되어지고 있다.

1)和田 節(1969)

「からだことば」(「몸말」)이라는 用語로 65項目에 이르는 대상을 들고 있으며[14] 이 안에는 「머리・이마・얼굴・뺨・눈썹」과 같은 가장 基本的인 身體部位語彙 외에 「눈물・콧물・땀・침・똥・오줌・숨」등과 같은 一種의 身體 분비물 내지는 배설물 등도 身體語彙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2)星野 命(1976)

身體의 部位를 나타내는 것 以外에도 「身體部位는 아니나 그로부터 派生된, 힘・열・통증・피・눈물・땀・때・침・구토물・똥・숨이라든가 심지어는 氣를 사용한 表現의 一部등도 身體語彙에 의한 表現으로 包含시켜도 지장이 없다」라며 身體로부터 起因하는 感覺에서부터 精神的인 作用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넓게 파악하고 있다.[15]

3)芳賀 矢一(1969)

머리와 얼굴을 비롯해 「눈・코・입・귀・가슴・배」에 이르기까지의 基本的인 身體語彙 慣用句와 그것이 나타내는 意味 및 役割을 感情과 關聯시켜 論하고 있다.[16]

---

14) 和田節 「からだことば考」, 『思想の科学』94, 思想の科学社, 1969
15) 星野命「身体語彙による表現」, 『日本語講座』(第4巻日本語の語彙と表現), 大修館, 1976 pp.155-156
16) 芳賀矢一, 「身体に關する言い回し」『學生』, 富士房, 1969 pp.36-39

4)林 八龍(2004)

身體語彙를 크게 「身體 그 自體를 대상으로 하는 境遇」와 「身體에서 起因하는 여러 現象이나 作用을 대상으로 하는 境遇」로 나누고, 그것을 각각의 特徵에 따라 다음과 같이 分類하고 있다.[17]

- 身體語彙
  - 身體 그 自體를 對象으로 하는 境遇
    - 1次的인 것
      - 部分으로서 把握할 수 있는 것
      - 全體로서 把握할 수 있는 것
    - 2次的인 것 – 꼭 一定하지만은 않은 것
  - 身體로부터 起因하는 제 現象이나 作用을 對象으로 하는 境遇
    - 1次的인 것 - 直接的이고 具體的인 것
    - 2次的인 것 - 間接的이고 抽象的인 것

이 중, 身體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境遇의 1次적인 것 中에서 部分으로서 받아들여지는 것을 「頭部・胴體部・四肢部」로 나누고, 전체로서 받아들여지는 것을 「全身部」로 規定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例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1) 머리부분(頭部) : 머리/頭, 얼굴/顔, 머리카락/髮, 가마/つむじ, 이마/額, 눈썹/眉, 눈/目, 볼/ほお, 귀/耳, 코/鼻, 입/口, 입술/唇, 혀/舌, 이/齒, 턱/あご, 수염/ひげ, 목/首, 목구멍/喉

2) 몸통부분(胴部) : 가슴/胸, 심장/心, 폐부/肺腑, 간/肝, 위/胃, 창자/腸, 배꼽/へそ, 허리/腰, 등/背, 배/腹

3) 팔・다리부분(四肢部) : 어깨/肩, 팔/腕, 팔꿈치/ひじ, 손/手, 손가락/指, 손톱/つめ, 손바닥/掌, 엉덩이/尻, 발/足, 무릎/ひざ, 정강이/すね, 뒤꿈치/きびす

4) 전신부분(全身部) : 몸/身, 피/血, 뼈/骨

이와 같이, 身體語彙라는 것은 學者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整理해 보

17) 林八龍, 『韓・日 身體語彙 慣用句의 對照硏究』, 제이앤씨, 2004 pp.13-19

면, 눈에 직접 보이는 部位에 한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部位, 또한 身體部位에서 파생되는 분비물과 추상적이고 정신적인 것들도 포함하는 廣義의 語彙라고 말 할 수 있겠다.

이처럼 다양한 身體語彙의 範圍 중, 본 논문은 林八龍(2004)에서 規定된 「身體 그 自體를 대상으로 하는 境遇」를 따라, 「1次的인 것」에서 「部分으로서 把握할 수 있는 것」에 속하는 四肢部(手足部)・頭部・胴部를 중심으로 分析하였다.

第 3 章. 身體 慣用句의 韓・日 比較分析

身體 慣用句는 人間의 내・외적인 면은 물론, 생리적 내지는 육체적 기능이나 심리적인 범주를 넘어서 다양하게 表現됨으로, 보통 직접적인 意味나 用法으로는 說明이 不可能하며, 전체로서 慣用에 의해 부여된 새로운 意味 또는 構成要素를 가지는 하나의 종합적인 表現體라는 特徵을 갖고 있다.

3.1. 手足部

3.1.1. 손 (手)

사람이 行動 하는데 가장 重要한 役割을 하는 部位에 속하는 '손(手)'은 身體關聯 慣用句 中에서도 가장 많은 語句를 점유하고 있어 여러 가지 意味로 사용되고 있다. '손(手)'에 대한 兩國의 辭典的 意味로는 사람의 팔목 아래 '손바닥・손등・손가락'으로 이루어진 部分, 比喩的으로 '事物을 쥐고 支配하는 힘을 가진 것, 손버릇, 소유・권력' 등의 意味로 整理할 수 있다. 情緖的인 面에서 日本語의 '手'는 '슬픔, 놀람, 분노, 기쁨' 등으로 나타났으나, 韓國語의 '손'은 感情과는 거리가 멀다.

【表1】(1) <韓・日 兩國語가 同一한 慣用句>

慣 用 句	意 味
손이 멀어지다	手がはなれる
손을 대다	手をつける
손에 넣다	手にいれる
손에 부치다	手に餘る
손에 붙지 않다	手につかない
손에 넘어가다	手にわたる
손이 빠르다	手がはやい
손을 쉬다	手をやすめる
손이 비다	手があく
손바닥 뒤집듯	手のうらを返すよう

손을 떼다	手をひく
손을 빌려주다	手をかす
손에 땀을 쥐다	手に汗をにぎる
손을 펴다	手をひろげる
손을 쓰다	手をつかう
손을 내밀다	手をだす
손(일손)이 없다	手がない
손이 모자라다	手がたりない
손이 미치다(닿다)	手がとどく

「手がたりない」는 「일손이 모자라다」, 「手がない」는 「일손이 부족하다」, 「手をかす」는「일손을 빌리다」의 意味로 모두 '일손'에 관한 慣用句들이다. 「手が早い」는 '손이 빨라 일을 척척 잘 해내다'의 意味로서 韓國語의 「손이 빠르다」라는 慣用句와 대응한다. 그리고「手に余る」는 '어떤 정신적・육체적인 일이 힘이 벅차다'는 意味로서 韓國語의 「손에 부치다」와 相應한다. '일을 시작하다・着手하다' 라는 意味로 「手をつける」는 「손을 대다」와 각각 對應한다.

【表2】(2) <韓・日 兩國語가 同一하지 않은 慣用句>

慣 用 句	意 味
손에 쥐다	手にする
손을 끊다	手がきれる
손이 검다, 손이 거칠다	手が長い
손을 쓰다	手を打つ
손을 뻗치다	手をさしのべる
손이 가다	手がかかる
손을 적시다	手をそめる
손이 모자라다	ねこの手もかりたい
고사리 같은 손	もみじのような手
손수 하다	手をよごす
손바닥 보듯이	手にとるように

‘사람・人力’에 관한 慣用表現인 「手が掛る」는 ‘많은 수고(努力)가 들다’라는 意味로 韓國語의 「손이 가다」와 相應하며, 또 「猫の手も借りたい」는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을 정도로 매우 바쁘다’라는 뜻으로 韓國語의 「손이 모자라다」와 각각 對應한다. 또, ‘일・작업・착수’에 關聯된 慣用句들과 ‘교제・관계’, ‘수단・방법’ 등을 나타내는 慣用句들이 있다.

【表3】(3) <韓國語에만 있는 慣用句>

慣 用 句	意 味
손에 걸리다	어떤 사람의 세력 범위에 잡혀 들다
손이 맞다	생각이나 행동이 일치하다
손을 타다	도둑맞다
손을 빼다	일을 그만두다
손이 맑다	인색하다
손이 작다	씀씀이가 깐깐하고 작다
손이 크다	재물을 다루는 폼이 깐깐하지 않고 푼푼하다
손이 떨어지다	일이 끝나다
손이 돌아가다	일손이 미치다
손이 뜨겁다	민망하다
손을 벌리다 / 손을 내밀다	금전적으로 도움을 청하다
손을 늦추다	일손의 긴장을 늦추다
손에 달리다	타인의 힘에 의해 좌우되다
손을 넘기다	시기를 놓치다
손을 털다	그만두다
손을 보다	고치다
손이 걸다	일솜씨가 좋다
손이 발이 되도록 빌다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빌다
손에 붙다 / 손에 오르다	능숙해져서 능률이 오르다

「손이 떨어지다」・「손을 넘기다」에서 처럼 ‘시간・기간’의 意味로서 表現된 慣用句 들이 있었고, 「손이 작다」・「손이 크다」와 같이 ‘금전적’인 뜻을 내포하고 있는 表現들도 볼 수 있으며, 또 대부분은 ‘일’에 관련된 ‘능력’이나 ‘수완’을 나

타내는 慣用句들도 있다.

【表4】(4) <日本語에만 있는 慣用句>

慣 用 句	意 味
手をやく	힘겹다
手におえない	감당할 수 없다
手にのる	수법에 넘어가다
手が付けられない	처리할 길이 없다
手を変え品を変える	이 수단 저 수단을 다 써서
手をぬく	절차를 생략하다
手も足もでない	손을 쓸 엄두도 못 내다
手がでない	엄두가 안 나다
手がうしろに回る	손에 쇠고랑을 차다
手があがる	솜씨가 늘다. 술이 늘다. 글씨가 잘 써지다
手をつくす	온갖 수단을 다하다
手取り足取り	여럿이 한사람을 억누르거나 연행하는 모양, 친절히 가르치려고 이끌어 주는 모양
喉から手がでる	매우 갖고 싶어 하다
手をやすめる	휴식하다
手のうちをよむ	마음속을 간파하다
手が込む	세공이 복잡하여 품이 들다. 일이 복잡하게 얽히다

「手をぬく」에서는 '절차・과정'의 意味를 가지고 사용되고 있고, 「手があがる」, 「手をつくす」, 「手を変え品を変える」, 「手も足もでない」등에서는 '手段'이나 '方法'의 意味로서 사용되고 있다.

'손(手)'은 兩國에서 共通的으로 '눈(目)' 다음으로 가장 많은 慣用句로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意味로 폭넓게 실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다. 수단・방법・계략・

일・수리・솜씨・수고・관계・付託 등 손이 상징하는 것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感情表現으로 쓰이는 境遇는 많지 않다. 韓國語보다는 日本語가 더 다양한 意味로서 나타났다.

3.1.2. 발 (足)

몸을 지탱해주고 걷는 行爲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발(足)'도 '손(手)'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意味로서 사용되어지고 있다. 兩國의 辭典的 意味를 要約해 보면 '動物의 몸을 지탱하게 하고 걷는 역할, 동물의 하체에 붙어서 딛고 서거나, 걸어 다니게 하는 기능'등으로 整理할 수 있다. 감정적인 면에서 韓國語의 '발(足)'은 부끄러움 등이, 日本語의 '발(足)'은 '기쁨・슬픔・두려움・분노' 등이 나타난다.

【表5】(1) <韓・日 兩國語가 同一한 慣用句>

慣 用 句	意 味
발을 옮기다	足を運ぶ
발을 맞추다	足なみをそろえる
발을 들여놓다	足を入れる
발판을 잃다	足場をうしなう

'보행・步調'에 관한 慣用句인 「足を運ぶ)」는 '실제로 그곳에 찾아 가보다'라는 意味로 韓國語의 「발을 옮기다」와, 「足並みをそろえる」는 '보조를 맞추다'라는 意味로「발을 맞추다」와 相應하고, '기반'과 관련된 表現으로 「足場を失う」는 '지금까지 依支하고 있던 기반을 잃다'라는 意味로 韓國語 「발판을 잃다」와 각각 相應한다.

【表6】(2) <韓・日 兩國語가 同一하지 않은 慣用句>

慣 用 句	意 味
발이 맞지 않다	足が亂れる
손을 씻다	足を洗う

펄펄 뛰다	足が地につかない
발이 빠르다	足がはやい
다리품을 팔다	足に物を言わせる
발이 묶이다	足を奪われる
발목(발)을 잡다	足を引っぱる
한 다리 하다 (달리기를 잘하다)	足がある
손수 쓰다	足で書く

역시 '보행・보조'에 관한 慣用句로서 「足を奪われる」는 '자연재해나 교통기관의 마비로 꼼짝 못하다'라는 意味로 「발이 묶이다」와 相應하고, 「足が早い」는 「발걸음이 빠르다」와, 그리고 「足が重い」는 「발걸음이 굼뜨다」라는 韓國語 慣用句와 意味가 일치한다. 또한 '교제・관계'에 관한 慣用句로 「足を洗う」가 「손을 씻다」와 相應한다.

【表7】(3) <韓國語에만 있는 慣用句>

慣 用 句	意 味
발이 길다	먹을 복이 있다
발걸음이 가볍다	부담이나 거리낌이 없이 경쾌하다
발에 채이다	여기저기에 흔하게 널려 있다
발을 보이다	재주를 남에게 드러내 보이다
발 뻗고 자다	걱정 따위가 마무리되어 마음을 놓다
발이 뜨다	이따금씩 다니다
발을 탕탕 구르다	노여움을 크게 나타내다
발이 짧다	먹을 때를 못 맞추다
발을 동동 구르다	몹시 안타까워 애를 태우다
발을 달다	보충적인 말을 덧붙이다
발 벗고 나서다	적극적으로 전심전력하다
발이 넓다	교제 관계가 넓다
발이 익다	길에 익숙하다

'기술'이나 '재주'의 意味로서 「발을 보이다」라는 慣用句가 있었고, '교제・관계'를 나타내는 「발이 넓다」가 있다. 「발 뻗고 자다」는 '편안함'을 意味하는 慣用

句이며, 이에 相應하는 日本語 慣用句는 볼 수 없었다. 韓國에서는 '발(足)'을 사용한 慣用句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表8】(4) <日本語에만 있는 慣用句>

慣 用 句	意 味
足がでる	예산을 초과하다
ひと足ちがい	순간의 차이
足を向けてねられない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足が棒になる	다리가 퉁퉁 붓다
足をはこぶ	찾아가다
二の足をふむ	주저하다

'이동'이나 '방향', '진행'을 나타내는 「足をはこぶ」・「 二の足をふむ」등의 表現들을 主軸으로 '금전'이나 '마음' 또는 '시간'에 빗대어도 사용되고 있다.

'발(足)'을 사용한 慣用句 表現은 그 자체의 성격상 動作이나 자세와의 관련이 많이 나타났다. 意味別로는 兩國 共通으로 걷는 行爲를 中心으로 한 '이동'이나 '상태'를 表現하는 機能이 대부분이었으며 '관계・관여・개입'이나 '기반・발판'과의 관련성도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韓國語에서는 日本語에서의 '금전'의 意味로서 사용된 慣用句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3.2. 頭部

3.2.1. 눈（目）

兩國에서 가장 많은 語句를 가지고 있는 '눈(目)'은 事物을 보는 機能을 하는 器官, 또 이 意味가 轉用되어 事物을 볼 때의 눈의 모습(눈초리), 사물을 보는 역할로서의 눈(視力), 물체의 形態를 분간하는 '눈(目)'의 능력・시력, 사물을 식별, 판단할 수 있는 힘, (무엇을 보는) 태도등으로 定義를 압축할 수 있다. 韓國語 日本語 모두

‘눈(目)’은 慣用句로 쓰일 때 ‘시력· 시선, 인식력· 판단력, 주의· 관심, 놀람, 노함, 귀여움’ 등의 비슷한 意味로 사용되고 있다.

【表9】(1) <韓・日 兩國語가 同一한 慣用句>

慣 用 句	意 味
눈이 돌다	目がまわる
눈에 보이다	目にみえる
눈에서 불이 나다	目から火がでる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目にいれても痛くない
눈을 주다	目をやる
눈이 닿다	目がとどく
눈이 높다	目がたかい
눈을 뜨다	目をひらく
눈을 끌다	目をひく
눈을 돌리다	目をむける
눈앞이 캄캄해지다	目の前が暗くなる
눈을 감다	目をつぶる
눈을 속이다	目をぬすむ
눈 위의 혹	目の上の(たん)こぶ
눈을 부라리다	目をむく
눈을 감다	目をとじる
눈을 감다	目をふさぐ
눈을 돌리다	目をむける
눈이 튀어나오다	目がとびでる
눈을 떼다	目をはなす

「目が高い」는 眼識力이 뛰어나다는 意味로 여기서의 ‘目’는 사물의 보는 能力의 意味로 쓰인다.「目にいれてもいたくない」는 ‘귀여움’이라는 感情領域에 포함이 되고 韓國語의「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와 相應하며, 「目の前が暗くなる」는 ‘실망・낙담’의 意味로서 「눈앞이 캄캄해지다」와 表現과 意味가 같으며, 이것 역시 感情領域에 속한다. 그리고「目をつぶる」・「目をとじる」등은「눈을 감다」와 相應 하는데 韓國語에 있어서「눈을 감다」는 죽다라는 意味를 나타내지만, 日本語

의「見て見ないふりをする」의 意味를 갖는 境遇에는「눈을 딱 감다, 모르는 척하다」의 意味로도 표현되고 있다.

【表10】(2) <韓・日 兩國語가 同一하지 않은 慣用句>

慣 用 句	意 味
눈에 쌍심지를 돋구다	目に角を立てる
눈길도 주지 않다	目もくれない
눈을 팔다	よこ目をみる
눈을 치켜뜨다	目をつりあげる
눈꼴사납다	目にあまる
눈을 뗄 수 없다	目がはなせない
눈이 동그래지다	目を丸くする
눈에서 불이 나다	目から火がでる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目の黒いうち
눈에 차다	目にとまる
눈을 부릅뜨다	目をむく
눈에 떠오르다	目にうかぶ
눈을 가늘게 뜨다	目をほそめる
한눈을 팔다	目をうばう
엎어지면 코 닿을 데	目と鼻の先
눈을 부릅뜨다	目をみはる

「目に角を立てる」는 「눈에 쌍심지를 돋구다」라는 韓國語 慣用句와 相應이 되는데 '쌍심지를 돋구다'란 表現이 '角を立てる'로 나타나고 있다. 「目もくれない」에서는 '눈길'이란 意味로서 韓國語의「눈길도 주지 않는다」와 비슷한 表現으로 볼 수 있으며, 「目をうばう」는 韓國語의 정신을 다른 곳에 둔다는 意味로「눈을 팔다」와 비슷한 表現이고, 여기서 '눈(目)'은 精神의 意味로 사용되었다. 「目をみはる」는 韓國語의「눈을 부릅뜨다」와 對應되는 表現이지만, 日本語의 경우는 화가 났거나, 놀랐을 때 사용되고 韓國語의 境遇는 화가 났을 때 사용되어, 意味上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며, 같은 意味로「눈을 부라리다」가 있다. 또한 韓國語의「눈을 부릅뜨다」의 對應하는 日本語 慣用句는 「目をみはる」・「目をむく」의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みはる’와 ‘むく’는 본래는 다른 뜻이지만, 目와 함께 쓰여 慣用的 으로 쓰일 때는 같은 意味를 갖는다.

【表11】(3) <韓國語에만 있는 慣用句>

慣 用 句	意 味
눈에 걸리다	마음에 들지 않아 눈에 거슬리다
눈 밖에 나다	신용을 잃어 미움 받다
눈시울을 붉히다	애처로운 것에 동정하거나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다
눈살을 찌뿌리다	못마땅하여 양미간을 찡그리다
눈이 뒤집히다	이성을 잃다
눈이 맞다	마음이 통하다
눈에 흙이 들어가다	죽다
눈이 삐다	뻔한 것을 잘못 보고 있을 때 핀잔으로 하는 말
눈에 들다	마음에 들다
눈에 차다	마음에 들어 흡족하다

「눈 밖에 나다」에서는 신임을 잃어 마음으로부터 벗어난다는 意味로 이성끼리 마음이 맞다, 뜻이 통한다는 「눈이 맞다」와 함께 마음과 관련이 되는 表現이다. 「눈에 흙이 들어가다」는 죽는다는 意味로 죽으면 땅에 묻히는 것과 관련된 表現이며,「한눈을 팔다」는 딴 짓을 하다의 意味도 있지만, 눈에 내포된 시선 혹은 관심의 意味가 확대되어 ‘外道’의 意味로서 쓰이고 있다.「눈이 뒤집히다」는 화가 나서 理性을 잃고 격분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慣用句로 이러한 것은 日本語에 비해 直說的이고 강한 表現이라 볼 수 있다. 「눈이 삐다」는 身體器官의 어느 部分이 삐어 제 機能을 하지 못하는 것을 눈에 比喩한 表現이다.

【表12】(4) <日本語에만 있는 慣用句>

慣 用 句	意 味
目をくぐる	감시의 틈을 노리다

目にする	보다
目がすわる	몹시 노하거나, 취하거나 방심하여 눈알이 움직이지 않는다
目にものをみせる	실제로 보여주다, 본때를보여주다
白い目で見	냉담한 혹은 증오에 찬 눈으로 보다
目をつける	눈여겨보다
目と鼻の先	거리가 매우 가깝다
目をそそぐ	어떤 것을 주의해서 보다
目から鼻へ抜ける	매우영리하다, 빈틈없고, 약삭빠르다
憂き目をする	쓰라린 경험을 하다
大目にみる	심하게 비난하지 않고 관대하게 대하다
ひどい目にあう	혼이 나다
目が固い	밤늦게까지 자려고 들지 않는다.

「目にする」는 韓國語의 '보다'는 意味인데, 'する'라는 動詞를 身體名에 붙여 그 身體어의 機能이 自然的으로 이뤄지게 하는 慣用句로서 韓國語에는 없는 형태의 慣用句에 속한다. 또 「目と鼻の先」는 '눈과 코 사이'로 직역할 수 있는데 그 만큼 짧은 거리를 나타내는 表現이다. 그리고「憂き目をする」・「ひどい目にあう」등 目를 이용하여 '체험・경험'의 意味로 나타나는 慣用句들이 있다.

'눈(目)'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 機能인 「사물을 보는 작용」이란 意味가 확대되어 「사물을 분별하는 판단력」과 關係되어 다양하고 광범위한 심리적 태도 및 感情 등의 意味로 表現되었다. 안목・분별력・관심・주의・자각・시선・기쁨・놀람・노여움・감동・질책・만족・불만 등 '눈(目)'과 관련된 慣用句 表現은 韓・日 兩國語에 共通的으로 다른 어떤 身體語彙보다도 다양한 意味로서 나타나고 있다.

3.2.2. 코 (鼻)

韓國語 '코'의 辭典的 意味는 얼굴 복판에 우뚝 솟아 숨 쉬거나 냄새를 맡는 역할을 하며, 발성을 돕는 중요한 器官・콧구멍에서 나오는 體液[18] 등의 意味를 가진

다. 日本語 '鼻'의 辭典的인 意味는 호흡하고 냄새를 맡는 곳, 얼굴 중앙에 돌출된 部分, 嗅覺[19] 등으로 定義되며, 慣用句로 사용될 때는 경우・자만・得意・경시・만취・근심・기쁨・분노・부끄러움・증오・슬픔・놀람 등으로 나타난다.

【表13】(1) <韓・日 兩國語가 同一한 慣用句>

慣 用 句	意 味
코 앞	鼻の先
코가 높다	鼻がたかい
코가 납작해지다	鼻がへこむ
코를 찌르다	鼻をつく
코를 훌쩍거리다	鼻をすする
콧대가 세다	鼻っぱしらが强い
코를 꺾다	鼻を折る
콧대를 꺾다	鼻っぱしらを折る

'코(鼻)'의 본래 機能인 냄새를 맡는 다는 意味로 사용된 「鼻をつく」가 「코를 찌르다」와 相應되었고, '자만'이나 '得意'의 意味로서 사용된「鼻がたかい」「鼻っ柱がつよい」는 韓國語 慣用句「코가 높다」「콧대가세다」와 같고 '우쭐하다, 건방지다, 잘난 체하다, 뽐낸다'는 意味를 나타내고,「鼻がへこむ」는 망신을 당하다, 위신이나 위세가 뚝 떨어진다는 意味로 韓國語의 「코가 납작해지다」와 相應되는 慣用句로 볼 수 있다. 대부분 '힘'이나 '세력', '자존심'을 나타내는 慣用句들이 많았다.

【表14】(2) <韓・日 兩國語가 同一하지 않은 慣用句>

慣 用 句	意 味
코대답도 않다	鼻も動かさない
콧방귀 뀌다	鼻であしらう
코웃음 치다	鼻でわらう

18) 이희승, 『國語大辭典』, 民衆書林, 1980, p.3899
19) 金田一春彦 外1人編, 『学研国語大辞典』, 学習研究社, p.1581

코를 찌르다	鼻がまがる
코가 듣다	鼻が利く
콧대를 세우다	鼻を高くする
코에 걸다	鼻にかける

‘냄새’에 關聯된 表現으로 「鼻が利く」, 「鼻がまがる」가 韓國語의 「냄새를 잘 맡다」, 「코를 찌르다」와 相應하였고, 자만, 득의, 경시의 意味로서「鼻であしらう」와 「鼻でわらう」는 韓國語 慣用句 「콧방귀 뀌다」, 「코웃음을 치다」와 對應된다.

【表15】(3) <韓國語에만 있는 慣用句>

慣 用 句	意 味
코가 땅에 닿다	겸손한 태도를 취하다
큰 코 다친다	험한 꼴을 당하다
코 큰 소리	잘난 체 하는 소리
코를 걸다	트집을 잡으려 하다
코 묻은 돈	코흘리개들이 가진 얼마 안 되는 돈
코가 삐뚤어지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몹시 취하다
코앞에 닥치다	목전에 있다
코가 꿰이다	약점이 잡히다
코를 박듯	열중하다
코를 꿰다	남을 자기에게 매이게 하다
코가 빠지다	기가 죽다
코끝이 시끈해진다	감정이 고조되어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코를 싸쥐다	무안을 당해서 얼굴을 들 수 없다

민망한 感情을 나타내는 「코를 싸쥐다」가 있었고, 「코끝이 시큰해지다」는 감동 받았을 때 쓰는 慣用句이며,「코가 삐뚤어지게」는 술을 너무 마셔 몹시 취할 때, 그리고 「코앞에 닥치다」에서는 ‘시간・기간’을 나타내는 表現으로 이러한 慣用句는 日本語에는 없는 것이다.

【表16】(4) <日本語에만 있는 慣用句>

慣 用 句	意 味
鼻の下が干上がる	생계를 잃고 굶주리다
鼻につく	싫증이 나다
鼻もちがならない	악취가 나서 참기 힘들다, 듣기에 역겹다
鼻をならす	아양떨다, 응석부리다
鼻にかける	내세우다, 자랑하다
鼻につき合わせる	대면하다, 마주치다
鼻の差	간발의 차
鼻の下が長い	여자에게 무르다, 색을 밝히다

「鼻の下が干上がる」는 '鼻の下'인 '입이 마르다'는 意味로 生計를 잃고 굶주린다는 뜻이고, 「鼻もちがならない」는「악취가 나서 코를 쳐들 수 없다, 언동이 아니꼽고 천해서 보고 듣기에 역겹다」는 두 가지 意味로 쓰이는 慣用句이다. 「鼻をならす」는 코를 울려 콧소리를 낸다는 意味로 사용되고 있다.「鼻にかける」는 '자만・ 得意'를 나타낸 慣用句로서 日本에서만 사용되고 있다.

'코(鼻)'의 주된 機能인 '호흡・냄새'를 필두로 '得意・자만・기세・의욕・고집・냉소・경멸' 등의 意味로서 확대되어 사용되었고, 韓國語에는 코의 一部를 가리키는 단어가 '코끝・콧날・콧대' 등 여러 개 있지만 感情이 나타나는 慣用句는 많지 않았고, 日本語 慣用句에는 '鼻'의 一部인 '鼻柱'의 慣用句도 포함해 感情이 나타나는 句가 많은 편이다.

3.2.3. 입 (口)

'입(口)'의 가장 원초적 機能으로 말하자면 '먹는 것'과 '말하는 것' 이 두 가지로 간추릴 수 있고, 辭典的 意味로는 동물이 음식을 섭취하는 器官, 말을 하는 器官, 사람이나 食口, 말솜씨 언어, 입버릇, 所聞 등의 意味를 가지고 있다. [頭部]중에서

‘눈(目)’다음으로 가장 많은 慣用句를 가지고 있어 사용되고 있는 意味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表17】(1) <韓・日 兩國語가 同一한 慣用句>

慣 用 句	意 味
입이 무겁다	口がおもい
입을 맞추다	口をあわせる
입에 오르다	口にのぼる
입을 조심하다	口をつつしむ
입을 모으다	口をそろえる
입이 가볍다	口がかるい
입에 풀칠하다	口をのりする
입에 맞다	口にあう
열린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開いた口がふさがらない
입을 열다	口を開く
입을 막다	口をふさぐ
입을 뾰로통하다	口をとがらす
입을 다물다	口をつぐむ
입술을 깨물다	口びるをかむ
입을 닦다	口をぬぐう

「口がおもい」와 「口がかるい」는 ‘말數’의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 表現으로서 韓國語 慣用句 「입이 무겁다」・「입이 가볍다」와 相應하고 「口をあく」는 말하기 시작한다는 意味로서「입을 열다」와 相應하였다. 「口をふさぐ」는 비밀 따위를 漏泄하지 않게 한다는 意味로 韓國語 慣用句「입을 막다」와 같은 뜻이다. ‘불만’을 나타내는 「口をとがらす」는 「입을 뾰로통하다」와 相應한다.

【表18】(2) <韓・日 兩國語가 同一하지 않은 慣用句>

慣 用 句	意 味
입이 무겁다	口がかたい
입에서 신물이 나다	口がすっぱくなる

입만 까다	口から先にうまれる
사탕발림하다	口車にのせる
입을 모으다	口をそろえる
말과 생각이 다르다	口と腹とは違う
입이 삐뚤어지다	口が曲がる
입을 봉하다	口にたつ
입이 걸다	口がわるい
입을 끊다	口を切る
말을 부리다	口をきく
입에 담다	口にする
입심이 좋다	口がうまい
말 많다	口がうるさい

「口が曲がる」어른에게 욕하면 입이 돌아간다는 意味로 「입이 삐뚤어지다」와 같은 뜻이며, 「口がわるい」・「口にする」・「口がうるさい」등 대부분이 '말'과 관계되어 사용하는 慣用句들이다.

【表19】(3) <韓國語에만 있는 慣用句>

慣 用 句	意 味
입이 짧다	식성이 까다롭다
입씨름을 벌이다	거칠게 말로서 애를 쓰다
입이 여물다	말이 확실하고 실속이 있다
입이 함박만하다	매우 만족해 하는 모양
입이 쓰다	기분이 언짢다
입이 떨어지다	말이 나오게 되다
입이 딱 벌어지다	정도가 지나친 잔혹함에 놀라서 말을 못하다
입이 달다	입맛이 당기어 음식이 맛있다
입이 아프도록	특별히 강조해서 몇 번이나 말하다
입을 씻기다	불리한 말을 못하게 뇌물을 주다
입이 궁금하다	군것질을 하고 싶다
입김이 세다	말로서 끼치는 영향이 크다, 권력이

	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남을 좋게 말하다
입이 도끼날 같다	입바른 소리를 날카롭게 하다
입을 놀리다	함부로 말을 하다
입이 헤프다	말을 많이 하다
입에 올리다	이야기 거리로 만들다
산 입에 거미줄 치다	가난하여 먹지도 못하고 굶다
입방아를 찧다	남 일에 이러쿵저러쿵하다
입이 닳다	반복해서 말하다

「입을 씻기다」는 말을 못하게 한다는 意味이고, 「입김이세다」는 '입'을 통해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입이 도끼날 같다」는 도끼처럼 날카로운 말을 한다는 意味로서 주로 '말'에 관계되고 「산 입에 거미줄 치다」・「입이 궁금하다」에서의 '입(口)'의 意味는 '먹는 것'으로서 사용되고 있다.

【表20】(4) <日本語에만 있는 慣用句>

慣 用 句	意 味
口がすぎる	말이 지나치다
口ばしがきいろい	아직 어리고 미숙하다
口をはさむ	참견하다
口がかかる	손님으로부터 신청을 받다
口をおごす	그럭저럭 입에 풀칠하다
口の端にのぼる	소문나다
口をだす	간섭하다
口に氣をつける	말에 조심하다
口がへらない	계속 지껄이다
口がすべる	무심코 말해버리다

「口がすぎる」역시 '말'의 意味로서 나타나는 表現이고 「口がくべる」・「口がへらない」역시 마찬가지이다. '참견・간섭'의 意味로서 「口をはさむ」・口をだす」가 있다. 「口がかかる」에서의 口는 '신청・초대'의 意味로 쓰인 것으로 전체

적인 意味는 손님으로부터 신청을 받는다는 의미다. 그리고 「口ばしがきいろい」는 '수완・나이'를 意味하는 表現이다.

주로 '말하다'라는 概念으로 나타나고 있는 '입(口)'은 그 외에 '發話, 말, 味學이나 食口, 出入口' 등의 意味를 가지며 慣用句에 사용되고 있고, 또 '경박・경솔・多辯・신중・개입・함구・침묵・누설・일치・언쟁・강조・기쁨・만족감・불쾌' 등의 意味로도 表現되었다.

3.2.4. 귀 (耳)

身體 部位로서 '귀(耳)'는 '듣다'의 機能에서 시작한다. 辭典的 意味를 살펴보면 청각을 맡은 器官, 듣는 機能을 하는 身體器官 귓바퀴, 물건 값에 좀 더 붙이는 금액, 그리고 바늘구멍, 돈의 끝자리, 종이나 책등의 가장자리 등 一般的인 귀의 機能 以外의 뜻을 가지고 있다.

【表21】(1) <韓・日 兩國語가 同一한 慣用句>

慣 用 句	意 味
귀를 세우다	耳をたてる
귀를 기울이다	耳をかたむける
귀를 씻다	耳をあらう
귀를 의심하다	耳をうたがう
귀가 간지럽다	耳がかゆい
아귀를 맞추다	耳をそろえる
귀가 멀다	耳がとおい
귀에 들어오다	耳にはいる
귀를 빌리다	耳をかす
귀에 못이 박히다	耳にたこができる
귀에 거슬리다	耳にさからう

'귀(耳)'의 가장 기본적인 機能으로 사용되어 지고 있는 「耳にはいる」・「耳をかたむける」・「耳をたてる」・「耳にたこができる」는 韓國語 慣用句 「귀에 들

어오다」·「귀를 기울이다」·「귀를 세우다」·「귀에 못이 박히다」와 相應하여 '듣다'의 意味를 나타내고 있다. 「耳をうたがう」는 들었던 말이 너무나 뜻밖이라 믿을 수 없다는 말로 「귀를 의심하다」와 相應하고 있으며, 「耳をそろえる」에서는 '부족함 없이 금액의 끝자리를 맞춘다'는 말로 돈의 끝자리로 사용되고 있다.

【表22】(2) <韓·日 兩國語가 同一하지 않은 慣用句>

慣 用 句	意 味
귀가 어둡다	耳がわるい
귀담아 듣다	耳にとめる
귀가 밝다	耳がちかい
귀가 가렵다	耳がかゆい
귀에 쟁쟁하다	耳につく
귀를 빌려주다	耳をかす
귀가 아프다	耳がいたい

「耳がわるい」는 韓國語 慣用句의「귀가 어둡다」와 비슷한 表現으로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意味이다. 그리고 남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表現으로 「耳をかす」, 듣기 거북한 소리를 여러 번 들었을 때의 表現으로 「耳がかゆい」, 소리 등이 귓전에 맴돈다는 意味로 「耳につく」등이 각각 「귀를 빌려주다」, 「귀가 가렵다」, 「귀에 쟁쟁하다」와 相應한다.

【表23】(3) <韓國語에만 있는 慣用句>

慣 用 句	意 味
귀를 도사리다	긴장해서 듣다
귀가 항아리만하다	남의 말을 쉽게 곧이듣다
귀가 뚫리다	외국어에 익숙해지다
귀가 절벽이다	세상소식에 어둡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둘러대기에 달렸다는 뜻
귀가 여리다	남의 말을 잘 믿다

귀가 새파랗다	아직 어리다
귀 밖으로 듣다	성의 없이 듣다
한 귀로 흘려버리다	재미가 없거나 근거가 없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져 주의 깊게 듣지 않는다
귀가 뜨이다	솔깃하게 관심을 갖게 되다
귀에 싹이 나다	몇 번이나 되풀이해서 듣다
귀에 거칠다	듣기 거북하다
귀가 무르다	속는 줄도 모르고 남의 말을 잘 믿다
귀에 쏠리다	열심히 듣게 되다
귀가 밝다	잘 듣다
귀를 팔다	정신을 딴 데 두다
귀를 재우다	말썽을 무마하여 평온하게 만들다

「귀가 항아리만 하다」는 귀의 크기를 빗대어 남의 말을 금방 듣고 믿어 버린다는 意味로 사용되고, 「귀가 무르다」는 反應의 程度를 귀에 빗대어 '무른 사람을' 意味한다. 주로 基本 機能인 '듣다'라는 틀 안에서의 慣用句들이 많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귀를 팔다」등과 같이 '정신'에 관련된 慣用句들도 있다.

【表24】(4) <日本語에만 있는 慣用句>

慣 用 句	意 味
耳がはやい	정보가 빠르다
耳をすます	주의를 집중시켜 듣다
耳にはさむ	얼핏 듣다
耳にする	듣다
耳にふれる	우연히 듣게 되다
耳をつぶす	못 들은 체 하다
耳が肥えている	음악 등을 음미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耳をすます」·「耳にはさむ」·「耳にする」·「耳にふれる」는 '귀(耳)'의

듣는 기능의 意味를 나타내고 있고 「耳がはやい」에서는 '정보・소식' 등에 빗대어 사용된 慣用句이다.「耳が肥える」는 음악 등을 理解하는 能力이 많다는 意味이다. 여기서의 '耳'는 感想力의 뜻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韓國語에는 없는 表現이다.

'듣다'의 機能에서 출발한 '귀(耳)'의 慣用的 意味로는 대부분이 '듣다'의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고, 그 외적인 意味로 금액의 끝자리 수, 소문이나 情報의 意味도 나타나기도 한 慣用句로 압축할 수 있다. 또 '귀(耳)'는 感情表現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

3.2.5. 얼굴・낯 *(顔)*

사람의 看板이라고 할 수 있는 '얼굴・낯(顔)'은 사람을 알아보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상대방에게 첫 인상을 판단할 수 있는 基準이기도 한다. '얼굴・낯(顔)'의 辭典的 意味를 살펴보면 눈・코・입 등이 있는 머리의 앞부분, 남을 대하기가 떳떳한 처지, 미모의 대상으로 본 얼굴의 모습, 인격을 대신하는 것으로서의 얼굴, 어떤 사물의 표면 등으로 定義 된다. 感情의 意味로는 '부끄러움・기쁨・슬픔・증오・두려움'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表25】(1) <韓・日 兩國語가 同一한 慣用句>

慣 用 句	意 味
얼굴을 고치다	顔をなおす
얼굴이 파래지다	顔が青くなる
얼굴을 하다	顔をする
얼굴을 내밀다	顔をだす
얼굴이 두껍다	顔が厚い
얼굴을 붉히다	顔を赤らめる
얼굴이 팔리다	顔がうれる
얼굴을 팔다	顔をうる
얼굴이 빨갛다	顔があかい
얼굴을 더럽히다	顔をよごす

얼굴이 서다	顔がたつ
안색을 살피다	顔色をうかがう
얼굴을 세우다	顔をたてる

「顔をなおす」는 '화장을 고친다'는 말로 韓國語 慣用句 「얼굴을 고치다」와 相應하고, 「顔が厚い」는 뻔뻔함을 나타내는 말로서 「얼굴이 두껍다」와 짝을 이루고 있다. '체면'의 意味를 담고 있는 「顔がたつ」는 「얼굴이 서다」와 相應하며, 「顔があかい」는 「얼굴이 빨갛다」와 「顔をあからめる」는 놀라움・부끄러움・ 흥분 등의 意味로 쓰인 것으로 韓國語의 「얼굴을 붉히다」와 同一하다.

【表26】(2) <韓・日 兩國語가 同一하지 않은 慣用句>

慣 用 句	意 味
얼굴을 깎다	顔をつぶす
얼굴이 좋다	顔がいい
창백한 얼굴을 하다	青い顔をする
얼굴이 화끈거리다	顔から火が出る
얼굴이 깎이다	顔がつぶれる
대할 낯이 없다	顔向けができない
얼굴에 먹칠을 하다	顔に泥をぬる
얼굴을 빌려주다	顔をかす
발이 넓다	顔がひろい
얼굴이 홍당무가 되다	顔に紅葉を散らす
볼 낯이 없다	合わせる顔がない

평판이 좋다는 뜻을 나타내는 「顔がいい」는 「얼굴이 좋다」와 意味가 같고, 타인의 부탁으로 인해 만난다는 「顔をかす」는 韓國語 「얼굴을 빌려주다」와 意味가 같다.「合わせる顔がいい」는 面目이 없어서, 상대를 만날 수가 없다는 意味로 韓國語의「볼 낯이 없다」와 相應하며, 「顔にどろをぬる」는 韓國語 慣用句의 「얼굴에 먹칠을 하다」와 意味가 같다. 부끄러움을 의미하는 「顔から火が出る」는 「얼굴이 화끈거리다」와 相應한다.

【表27】(3) <韓國語에만 있는 慣用句>

慣 用 句	意 味
낯(얼굴)이 간지럽다	부끄럽고 어색하다
얼굴을 익히다	낯익히다
낯이 없다	면목이 없다
얼굴이 뜨겁다	대단히 부끄럽다
얼굴이 선지방구리가 되다	흥분해서 얼굴이 시뻘겋게 되다
얼굴을 들지 못하다	창피해서 얼굴을 볼 수 없다
얼굴값을 하다	체면을 유지하다
얼굴이 꽹과리 같다	염치없고 뻔뻔스럽다
얼굴을 봐서	체면을 고려해서
얼굴에 철판을 깔다	몹시 뻔뻔스럽다
얼굴에 모닥불을 끼얹듯 하다	몹시 부끄럽다
얼굴에 노랑꽃이 피다	형편이 나쁘다

'부끄러움'의 나타내고 있는 慣用句 「낯(얼굴)이 간지럽다」・「얼굴이 뜨겁다」・「얼굴에 모닥불을 끼얹듯 하다」와 '뻔뻔함'을 나타내는 「얼굴이 꽹과리 같다」・「얼굴에 철판을 깔다」, 그리고 '체면・면목'의 意味로 「얼굴값을 하다」・「얼굴을 봐서」등이 있다.

【表28】(4) <日本語에만 있는 慣用句>

慣 用 句	意 味
おおきな顔をする	잘난 체 하다
うかない顔をする	침울한 표정을 짓다
顔がきく	영향력이 있다
顔がそろう	인원이 다 모이다
顔をふる	거절하다, 외면하다
顔をつなぐ	인연을 맺다

「おおきな顔をする」에서는 '얼굴의 크기를 빗대어서 잘난 체 한다'는 意味로 사용되고, '힘・권력'을 意味하는 「顔がきく」, '關係'를 뜻하는 「顔をつなぐ」등

다양한 意味로서 表現되고 있다.

눈, 코, 입, 귀 등이 갖추어져 있는 '얼굴・낯(顔)'은 여러 身體器官이 모여 있는 것처럼 다양한 表情에 의해, 내면의 感情과 관계되는 意味를 갖는 慣用句가 많았다. '체면・평판・출세・면목・태도・입장・기쁨・슬픔・걱정・놀람・부끄러움・공포' 등의 意味로 나타났다.

3.2.6. 머리 (頭)

頭部 전체를 가리키는 '頭'는 動物體가 사고하고 지시하는 뇌와 중추신경을 감싸고 있는 중요한 部分이기에, 사람의 境遇도 머리카락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頭'의 辭典的 意味는 사람이나 동물의 목에서부터 윗 部分, 조직이나 단체의 상층부, 사고력(知的能力), 사물의 최초, 인원수[20] 등의 意味로 사용되고 있으며, 慣用的 意味로는 '頭腦의 작용, 두각. 기세, 근심, 번뇌, 수치, 두발, 겸손과 거만' 등의 意味로 사용되고 있다.

【表29】(1) <韓・日 兩國語가 同一한 慣用句>

慣 用 句	意 味
머리가 유연하다	頭がやわらかい
머리를 쓰다	頭をつかう
머리가 좋다	頭がいい
머리를 숙이다	頭をさげる
머리가 굳다	頭がかたい
머리를 식히다	頭をひやす
머리가 나쁘다	頭がわるい
머리가 있다	頭がある
첫머리부터	頭から
머리를 싸쥐다(고민하다)	頭をかかえる
머리가 꽉 차다	頭がいっぱい

20) 松村明, 『大辞林』, 三省堂編修所, 1992, p.48

머리가 무겁다	頭がおもい
머리가 아프다	頭がいたい
머리가 수그러지다	頭がさがる
머리를 쓰다	頭を使う
머리를 짜다	頭をしぼる
머리를 긁다	頭をかく
머리가 잘 돌아가다	頭がきれる

「頭がある」는 보고, 판단할 능력이 있다는 말로 韓國語 「머리가 있다」와 相應하고, 「頭をしぼる」는 '골똘히 생각하다, 궁리하다'의 意味를 나타내는 「머리를 짜다」와 相應한다. '知能'의 意味를 나타내는 「頭がいい」·「頭がわるい」는 「머리가 좋다」·「머리가 나쁘다」와 相應하고, 「頭がいたい」는 두통이 있다, 걱정거리가 있어 기분 따위가 좋지 않다는 意味를 갖고 있으며, 韓國語의「머리가 아프다」와 對應된다. 「頭をかかえる」는 매우 고민된다는 意味로 쓰이는 表現으로 韓國語 慣用句의「머리를 싸매다」와 對應된다.

【表30】(2) <韓·日 兩國語가 同一하지 않은 慣用句>

慣 用 句	意 味
머리를 짜다	頭をひねる
머리가 잘 돌다	頭の回轉がはやい
(골)머리를 썩히다	頭を痛める
머리를 가로 젓다	頭を横にふる
머리에 있다	頭にある
머리에 서리가 앉다	頭にしろいものがめだつ
머리를 들다	頭をもたげる
머리를 못 들다	頭があがらない
머리를 끄덕이다	頭を縱にふる

「頭をひねる」는 머리를 갸우뚱 거리며 생각하다의 意味로, 韓國語 慣用句의 「머리를 짜다」와 비슷한 表現이고 「頭にある」는 '생각하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는 意味로 「머리에 있다」와 相應하며, 「頭を横にふる」는 '거절'을, 「頭を縱

にふる」는 '同意'를 나타내는 表現으로 각각 韓國語의 「머리를 가로 젓다」, 「머리를 끄덕이다」와 相應한다.

【表31】(3) <韓國語에만 있는 慣用句>

慣 用 句	意 味
머리가 터지도록	열심히
머리가 젖다	인습과 사상에 물들다
머리가 썩다	사고방식이나 사상이 낡아서 못쓰다
머리를 맞대다	숙의하다
머리를 풀다	상제가 되다
머리가 크다	성장하다
머리를 얹다	시집가다
머리를 굽히다	겸손하다
머리가 깨다	뒤떨어진 생각에서 벗어나다
머리가 빠질 지경이다	힘들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르다	어리다

「머리가 터지도록」은 심하게 말싸움이나 격한 일을 하고 있을 때 表現하는 慣用句이다. 「머리가 젖다」는 인습과 사상을 액체에 빗대어 머릿속에 배어있는 말을 意味하고, 「머리를 맞대다」는 서로 곰곰이 생각하는 모습을 比喩하여 表現한 慣用句이다. 「머리가 크다」는 성인이 되는 것을 比喩한 表現이며, 「머리에 피도 안 마르다」는 나이가 어리다는 意味를 나타낸다.

【表32】(4) <日本語에만 있는 慣用句>

慣 用 句	意 味
頭をまるめる	머리를 깎고 출가하다
頭がひくい	겸손하다, 고분고분하다
頭をなやます	골치를 앓다, 번뇌를 하다
頭を押さえる	권력 따위로 압박하다
頭がたかい	교만하다, 무례하다, 건방지다

「頭をまるめる」는 '머리를 잘라 중이 된다'는 意味로 韓國語로 直譯하면 '머리를 둥글게 하다'인데 이러한 表現으로 '出家하다'의 意味를 나타내는 것은 韓國語에는 없는 表現이다. 또, '겸손'을 나타내는 「頭がひくい」, '오만'의 意味를 담고 있는 「頭がたかい」등이 있다.

感情을 받아들이는 器官인 '머리(頭)'는 '심리・태도・현상・사고・정신' 등의 意味로 表現되고, 日本語에서는 주로 '복종・존경・겸손・대두・제지・고민・부인' 등의 意味로, 韓國語에서는 '면목, 존경, 추종, 對頭, 고민, 부인, 熟議' 등의 意味로 表現된다. 그리고 '머리(頭)'는 人間의 基本的인 感情인 '喜・怒・哀・樂' 중 '怒'와 가장 관련이 깊은데, 日本語에서는 '怒'를 중심으로 感情이나 정신적인 괴로움과 깊은 關係가 있는데 비해, 韓國語에서는 感情보다 정신적 고통이나 고민에 관련된 表現이 대부분이었다.

3.2.7 목, 고개 (首)

[頭部]와 [胴體部]의 경계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목, 고개(首)'는 그 역할이 인간의 생명과 결부되어 있어 중요한 器官이기에 생명 그 자체의 象徵처럼 認識되고 있다. 日本語에서 '목, 고개(首)'의 意味는 '동물의 머리와 몸통을 련결하는 部分, 직장을 잃다・해고'[21] 라고 定義하고 韓國語에서 '목, 고개(首)'의 意味는 '동물의 머리와 몸 사이를 잇댄 잘룩한 부분, 넓은 意味로 목구멍도 포함, 곡식의 이삭 달린 부분,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 중요한 길의 좁은 곳[22]'으로 定義되고 있다. 慣用句로 나타난 '목, 고개(首)'의 意味로는 '위세・외면・해고・면직' 등이 있다.

【表33】(1) <韓・日 兩國語가 同一한 慣用句>

慣 用 句	意 味
목을 자르다	首を切る

21) 新村出(1998), 『廣辭苑』, 岩波書店, P763
22) 남영신(1997), 『우리말분류대사전』, 성안당, P 290

목이 위험하다	首があぶない
목이 날아가다	首がとぶ
고개를 갸웃거리다	首をかしげる
목이 붙어있다	首がつながる

‘해고・면직’의 意味로 「首を切る」・「首があぶない」・「首がとぶ」・「首がつながる」가 각각 韓國語 慣用句 「목을 자르다」・「목이 위험하다」・「목이 날아가다」・「목이 붙어 있다」와 相應하고, 「首をかしげる」는 ‘갸웃갸웃하며 疑心스럽게 생각한다’는 말로 韓國語 慣用句의「고개를 갸웃거리다」와 같은 意味이다.

【表34】(2) <韓・日 兩國語가 同一하지 않은 慣用句>

慣 用 句	意 味
고개를 끄덕이다	首を縱にふる
몹시 기다리다	首をながくする
고개를 젓다	首を横にふる
고개를 갸우뚱하다	首をひねる

‘동의・거절’의 表現인 「首を縱にふる」・「首を横にふる」는 韓國語 慣用句「고개를 끄덕이다」・「고개를 젓다」와 相應하고 이것은 「頭を横にふる」・「頭を縱にふる」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首を長くして」는 韓國語 慣用句의「목이 빠지도록」과 비슷한 表現으로 여기서 ‘목, 고개(首)’는 ‘기대’의 意味로서 나타나고 있다.

【表35】(3) <韓國語에만 있는 慣用句>

慣 用 句	意 味
고개를 숙이다	위세가 약해지다, 기세가 꺾이어 누그러지다
목에 힘을 주다	거드름을 피우거나 위세 좋게 남을 깔

	보는 듯한 태도를 취하다
고개를 돌리다	상대의 동의 없이 등을 돌리다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하다	면목이 없어, 세상에 얼굴을 들 수가 없다
고개를 떨구다	기가 약해져서 위축된 모양
고개 하나 까딱하지 않다	꼼짝하지 않는다 조금도 놀라지 않다

'위세・권세・힘'을 나타내는 表現으로서 「고개를 숙이다」・「목에 힘을 주다」・「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하다」・「고개를 떨구다」등이 있고 이중 같은 맥락이지만 「목에 힘을 주다」는 나머지 셋과 반대의 意味인 '당당하고 위세 좋은' 느낌을 준다. 또, 「고개 하나 까딱하지 않다」는 '목, 고개(首)'가 '몸'전체에 比喩되어 '전혀 마음의 동요를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는 意味의 表現이다.

【表36】(4) <日本語에만 있는 慣用句>

慣 用 句	意 味
首がまわらない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안절부절 하다
首になる	면직, 해고 또는 제명되다
首にする	해고하다
首をつっこむ	어떤 일에 흥미를 가지고 관계하다. 깊이 관여하다
首をかける	목숨을 걸고 하다
首をすげかえる	직책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다. 경질하다
首をはねる	목을 치다

「首になる」・「首にする」・「首をすげかえる」에서 나타나듯이 '해고나 해임・면직'등의 意味로 사용되는 慣用句가 많고, 「首をかける」・「首をはねる」에서처럼 '목숨・生命'을 나타내는 慣用句들도 있다.

머리 부분과 몸통을 잇고 있는 重要한 器官인 '목, 고개(首)'는 주로 '지위・위

치・보전・소실・유지・생명・목숨・거절・동의・개입・관여' 등으로 나타나고, 동작이나 행위와 결부되는 것은 日本語의 境遇 '목, 고개(首)'를 사용한 動作이나 행위는 예를 들면 「首が回らない」와 같이 극히 一部分의 例를 제외하고서는 주로 의문이나 찬부의 反應과 관계되는 것에 集中되어 있다. 이와 달리 韓國語의 境遇는 꽤 다양한 개념과 관련되며 그들은 모두 실제의 구체적인 행동으로부터 暗示的인 意味로 바뀌어 사용되는 것이다. 또한 「목」의 境遇 兩國語에 共通的으로 感情과는 거의 결부되지 않는 것 [23]으로 나타났다.

3.3. 胴體部

3.3.1. 배 (腹)

'배(腹)'는 人間의 중요 소화기관들이 밀집해 있고 모든 생명이 그 안에서부터 시작한다는 出産의 機能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으나, 대부분은 '배(腹)' 로 인해 파생된 추상적 意味로 사용되어지며, 그 자체의 意味만을 나타내는 境遇는 희박하다. 또한 [胴體部]의 윗部分을 담당하고 있는 '가슴(胸)'과 같은 意味로 함께 쓰이기도 한다. '배(腹)'의 辭典的 意味로는 사람 동물의 가슴에 이어지는 部分, 腹部, 母胎, 척추동물의 흉강과 골반 사이의 部分, 물체의 中央이 되는 部分, 마음, 생각 등으로 定義 내려져 있다. 대부분 '마음・배짱・度量・성냄・분노' 등의 意味로 사용된다.

【表37】(1) <韓・日 兩國語가 同一한 慣用句>

慣 用 句	意 味
배탈 나다	腹をこわす
뱃속이 검다	腹がくろい
배속을 들여다 보다	腹をみぬく
배다르다	腹ちがい

23) 林八龍, 『韓・日 身體語彙 慣用句의 對照研究』, 제이앤씨, 2004, p.56

배에서 쪼르륵 소리가 나다	腹がごろごろなる
배를 가르다	腹をわる

「腹をこわす」・「腹をみぬく」・「腹をわる」에서의 '배(腹)'는 모두 '마음'을 意味하고 각각 韓國語 慣用句 「뱃속이 검다」・「뱃속을 들여다 보다」「배를 가르다」와 相應한다. 그리고 「腹がごろごろなる」는 '배고픔'을 意味하고 「배에서 쪼르륵 소리가 나다」와 相應한다.

【表38】(2) <韓・日 兩國語가 同一하지 않은 慣用句>

慣 用 句	意 味
배를 가르다	腹をきる
타락하다	腹がくさい
분통이 터지다	腹の虫がしょうちしない
속이 좁다	腹がちいさい
화가 나다	腹がたつ
私腹을 채우다	腹をこやす
배꼽을 빼다	腹をよじる
배가 부풀다	腹がふくれる
심보가 더럽다	腹がきたない
배를 움켜잡다	腹をかかえる
배불리 먹고 만족하다	腹つづみを打つ
배가 남산만하다	腹がおおきい

「腹がふくれる」・「腹が大きい」는 각각 韓國語 慣用句 「배가 부풀다」・「배가 남산만하다」와 相應하고 여기서 '배(腹)'의 意味는 '母胎'의 意味로 사용된다. 「腹の虫がしょうちしない」와 「腹がたつ」에서는 '화・불쾌'의 意味로 나타났다. 「腹がちいさい」는 '담력・배짱'을 意味하는 慣用句로서 「속이 좁다」와 相應한다. 「腹つづみを打つ」는 '실컷 먹고 부른 배를 북처럼 두드림'에 比喩하여 「배불리 먹고 만족하다」와 相應한다. 그리고 「腹をこやす」는 「私腹을 채우다」와 相應하고 여기서 '배(腹)'의 意味는 '사심・사욕'이다.

【表39】(3) <韓國語에만 있는 慣用句>

慣 用 句	意 味
배가 맞다	남녀가 떳떳하지 못하게 관계를 맺다
배에 기름이 오르다	풍족하다
배를 내밀다	남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
배에 발기름이 끼다	호기를 부리고 떵떵거리다
배를 따다	생선 따위의 배를 가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딸린 것이 주되는 것 보다 더 크거나 많음
배를 앓다	남이 잘되는 것이 못마땅하고 심술이 나 가만있지 못함
배가 아프다	남이 잘되는 것이 믿고 심술이 나다

「배가 맞다」는 '男女의 不適切한 關係'란 뜻으로 여기서 '배(腹)'의 意味는 '關係'이다. 「배를 앓다」・「배가 아프다」는 남이 잘되는 것을 '질투・질시'하는 慣用句이다.

【表40】(4) <日本語에만 있는 慣用句>

慣 用 句	意 味
腹を痛めた子	친자식
腹がいたむ	손해를 보다
腹の虫のいどころが悪い	여느 때와는 달리 기분이 언짢다
腹をさぐる	속마음을 떠보다
腹におさめる	마음속에 새겨두다
腹をきめる	각오하다
腹を合わせる	협력하다, 한통속이 되다
腹はかりたもの	태어난 아이의 신분의 귀천은 아버지에게 달렸다는 뜻

「腹を痛めた子」・「腹はかりたもの」는 '배(腹)'의 意味가 '출산・출생'으로 사용되고 있는 表現들이다. '속마음'의 意味를 갖는 「腹をさぐる」, '결심・각오'의 意味를 갖는 「腹におさめる」・「腹をきめる」등이 있고 이런 慣用句들은 韓國에는

없는 日本에만 存在하는 表現들이다.

胴體部의 아랫部分을 總體的으로 가리키는 部位인 '배(腹)'는 그 내부에 장이나 위 등의 많은 장기를 포함하고 있고, 음식물이 들어가는 공간이나 母胎의 意味에서 확대되어 慣用句로 쓰일 때의 '배(腹)'의 意味는 주로 '내심・본심・度量・배짱・출산・출생・결심・각오・질투・질시・母胎・私心・성냄・화・불쾌함・분노' 등이 있으며, 이중 '성냄・화・불쾌함・분노' 등은 感情表現의 영역에 속한다.

3.3.2. 가슴 (胸)

'가슴(胸)'은 心臟과 肺의 役割을 하는 人間의 가장 중요한 部位이며 또한 내적인 感情表現이 韓・日 兩國에서 다른 어느 身體 慣用句보다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가슴(胸)'의 辭典的 意味로는 '몸의 前面에서 목과 배 사이의 部分 심장, 위, 폐, 마음[24]'등으로 定義하고 있으며, 慣用的 意味로는 주로 '人間의 마음상태', '감동・흥분・기대・놀람・분노・아픔・불쾌함' 등 感情領域과 관련된 表現들이 대부분이다.

【表41】(1) <韓・日 兩國語가 同一한 慣用句>

慣 用 句	意 味
가슴이 찢어지다	胸をさける
가슴에 그리다(상상하다)	胸にえがく
가슴을 펴다	胸をはる
가슴(애)을 태우다	胸をこがす
가슴이 아프다	胸がいたい
가슴을 쓰다듬어 내리다	胸をなでおろす
가슴이 벅차 오르다	胸がいっぱいになる
가슴에 새기다	胸にきざむ
가슴을 열다	胸をあく
가슴에 간직하다	胸におさめる
가슴이 부풀다	胸がふくらます

24) 松村明, 『大辞林』, 三省堂編修所, 1992, p.2362

‘人間의 마음 상태’를 나태내는 表現들로 「胸が痛い」・「胸が張り裂ける」등이 「아프다」・「찢어지다」라는 韓國語 慣用句와 相應하고 있으며, 「胸に描く」는 ‘마음으로 그리워하다’는 意味로 韓國語의 「가슴에 그리다」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어지고 있고, ‘安心하다’라는 意味로 「胸を撫で下ろす」가 「가슴을 쓰다듬어 내리다」와 相應하고 있다.

【表42】(2) <韓・日 兩國語가 同一하지 않은 慣用句>

慣 用 句	意 味
가슴이 후련하다	胸がすく
가슴을 치다	胸をうつ
가슴이 미어지다	胸がつぶれる
가슴이 설레다	胸をふくらませる
가슴이 뛰다	胸がさわぐ
가슴이 타다	胸を痛める
가슴에 담다	胸三寸に納める
가슴을 헤쳐 놓다	胸を割る
마음에 짚이다	胸にあたる
가슴에 묻다	胸にたたむ

「胸がつぶれる」는 ‘슬퍼서 가슴이 미어지다, 깜짝 놀라다’의 意味로서 韓國語 慣用句의 「가슴이 미어지다」와 相應하고 「胸がすく」는 「마음이 후련하다」와 「胸にたたむ」는 ‘겉으로 내색하지 않고 마음 속 깊이 간직해 두다’의 意味로 「가슴에 묻다」와 相應하고 있으며 ‘人間의 마음狀態’를 意味하고 있다. 또 「胸にあたる」는 「마음이 짚이다」로 「胸を痛める」는 ‘마음속으로 몹시 걱정하다’의 意味로 「가슴이 타다」와 각각 相應한다.

【表43】(3) <韓國語에만 있는 慣用句>

慣 用 句	意 味
가슴이 찔리다	마음에 가책을 받다

가슴을 저미다	마음을 아프게 하다
가슴을 쥐어짜다	안타까워하다
가슴이 섬뜩하다	불안이나 위험을 느끼다
가슴을 조이다	조마조마 하다
가슴에 못을 박다	상처나 아픔을 주다, 한을 맺게 하다
가슴이 한줌만 하다	몹시 걱정스럽고 조마조마하다
가슴이 내려앉다	충격으로 마음이 아프다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하다	불안하다
가슴에 맺히다	恨이나 슬픔이 마음속에 남아 없어지지 않다
가슴이 타다	초조하고 걱정이 되다
가슴이 숯등걸이 되다	애가 타서 마음이 몹시 상하다

'가슴(胸)'을 '마음'함께 보는 경향에 따라 「가슴이 찔리다」·「가슴을 저미다」·「가슴에 맺히다」·「가슴이 숯등걸이 되다」등에서는 '마음'의 意味로 나타난 表現이고, 「가슴이 섬뜩하다」·「가슴이 한줌만 하다」「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하다」·「가슴이 타다」는 '걱정'과 '不安'의 要素가 들어 있는 慣用句로서 韓國語에만 있는 表現들이다.

【表44】(4) <日本語에만 있는 慣用句>

慣 用 句	意 味
胸にきく	곰곰이 생각하다
胸にこたえる	마음속에 사무치다
胸がふさがる	근심으로 가슴이 답답해지다
胸があく	마음이 명랑해지다
胸がつかえる	음식에 체하다, 마음이 괴롭다
胸がやける	과식하여 속이 답답하다
胸くそがわるい	기분 나쁘다, 불쾌하다
胸がわるくなる	속이 메스껍다
胸にせまる	감동시키다
胸をかりる	연습기회를 얻다

「胸がつかえる」・「胸がやける」・「胸がわるくなる」에서는 '소화기관'의 意味로서 나타나는 表現이고, 「胸がふさがる」는 '걱정'의 意味를 내포하고 있고, 「胸があく」는 '기쁨'과 관련된 慣用句로서 日本語에만 있는 表現들이다.

'가슴(胸)'은 [胴體部]의 윗部分을 담당하고 있는 部位로서 심장과 폐를 내포하고 있다. '가슴(胸)'도 '배(腹)'와 마찬가지로 '소화기관'을 나타내는 등 서로 共有하고 있는 部分을 알 수가 있다. '가슴(胸)'은 '마음'과 同格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대부분 '결심・각오・생각' 등의 意味로 사용되었으며, 感情表現으로는 '기쁨・유쾌・불쾌・슬픔・괴로움・걱정・불안・안심・놀람・감동・흥분' 등으로 나타난다. 韓國語에서 가장 사용 빈도가 높은 '가슴'의 慣用句는 아주 다양하고 복잡한 感情이 나타나는 句가 많은데, 그 중 부정적 感情이 많다. 또한 日本語 慣用句에서 '胸'는 '目' 다음으로 사용빈도가 높은 身體 慣用句이며, 肯定的 感情보다 否定的 感情이 나타나는 빈도가 약간 높지만 韓國語의 境遇만큼 큰 差異는 없다.[25]

3.3.3 허리 (腰)

'허리(腰)'는 우리 몸의 움직임을 可能하게 해주고 上半身과 下半身의 境界를 이루는 部位로서 그 機能을 보자면 대부분 몸을 지탱하여 행동과 자세에 관한 表現들이 많다. 辭典的 意味를 보자면 동물의 등뼈 아래에서 골반까지의 잘록한 部分이나 허리에 比喩한 사물의 중간, 의복의 허리部分, 자세, 태도, 기세 등의 意味로 定義[26]되어 있다. 兩國에서의 '허리(腰)'의 의미는 꽤 많은 차이가 있는데 허리의 신체상 機能이나 역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日本語에서의 '허리(腰)'에 비해 韓國語의 境遇는 극히 한정되어 있다.

【表45】(1) <韓・日 兩國語가 同一한 慣用句>

慣 用 句	意 味

25) 도쿠나가이즈미,「韓國語와 日本語의 身體語彙 慣用句 對照硏究」, 서울대학교, 1999, p.57
26) 金田一春彦, 『学研国語大辞典』, 學習硏究社, 1978 p681

腰を伸ばす	허리를 펴다

허리(腰)를 사용한 慣用句 중 韓國語와 構成形態와 意味가 同一한 慣用句는 거의 드물었고 단지 「腰を伸ばす」는 '便安한 자세로 休息을 취하다・쉬다'라는 意味로 韓國語의 「허리를 펴다」라는 慣用句와 相應하고 있다.[27]

【表46】(2) <韓・日 兩國語가 同一하지 않은 慣用句>

慣 用 句	意 味
腰がひくい	허리를 굽히다
腰をおる	허리를 굽히다
腰がたかい	거만하다

「腰がひくい」・「腰がたかい」는 '자세'를 意味하는 表現으로 前者는 「허리를 굽히다」로 後者는 「거만하다」의 韓國語 慣用句와 相應한다. 그리고 「 腰を折る」는 '기세・기질'에 관한 表現으로 韓國語의 「허리를 굽히다」와 意味가 서로 相應한다.

【表47】(3) <韓國語에만 있는 慣用句>

慣 用 句	意 味
허리가 휘다	꽤 힘들게 일하다
허리를 잡고 웃다	심하게 웃고 있는 모양
허리가 끊어지게 웃다	매우 심하게 웃는 모양
허리를 못 펴다	신세를 지고 있음으로 허리를 낮추다
허리띠를 늦추다	여유가 생겨서 긴장을 완화시키다
허리를 졸라매다	검소한 생활을 하다

「허리를 잡고 웃다」・「허리가 끊어지게 웃다」는 '웃음'을 나타내는 表現이고 「허리띠를 늦추다」・「허리를 졸라매다」는 '생활'이나 '生計'에 관련된 慣用句이

27) 安柳洙「日本語 慣用句에 대한 硏究」, 경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p.86, 在引用

다. 「허리가 휘다」는 노동하는 모양을 比喩하였다.

【表48】(4) <日本語에만 있는 慣用句>

慣 用 句	意 味
腰がおもい	신중하게 행동을 하다
腰をわる	자세를 안정시켜 강한 외부 힘에 대항하다
腰がよわい	의지가 약하다
腰がすわる	안정되다
腰がくだける	곤란한 사태에 처하여 좌절하다
腰がぬける	너무 놀라 일어설 기운조차 없다
腰をかける	앉아서 쉬다
腰がつよい	쉽사리 타인에게 굴하지 않는다
腰がおちつく	안정되다

「腰を割る」・「腰が强い」・「腰が弱い」는 '의지・기세・힘'을 나타내는 慣用句이며, 「腰を描ける」는 '자세'를, 그리고 「腰が据わる」・「 腰が落ち着く」는 '안정'을 意味하는 慣用句로 사용된다.

人間의 몸을 지탱해주고 균형감을 잡아주는 '허리(腰)'는 位置的으로 '배(腹)'와 反對쪽에 位置하여 대부분 '움직임'이나 '자세'에 관한 表現들이 많으며, 그 외에도 '기세・기질・웃음・생활・생계・의지・자세・안정・움직임' 등의 意味로 나타난다.

第 4 章. 結 論

以上으로 韓國과 日本의 身體 慣用句에 대하여 比較硏究해 보았다. 慣用句는 일상생활을 통해서 생겨났기 때문에, 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 민족성이 반영된 結晶이라 할 수 있겠으며, 풍부한 예술성과 상징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이 때문에 文法的인 規則이나 본래의 語彙 自體가 가지고 있는 意味와는 다른 意味로 나타나는 慣用句는 日本語 학습자에게는 까다로운 部分이다. 특히 전체 慣用句중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韓・日 身體 語彙 慣用句에 대한 共通點과 差異點을 比較硏究 하는 것은 매우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身體 語彙 慣用句 硏究를 위하여, 여러 學者의 先行硏究를 中心으로 慣用句의 定義 및 特徵을 整理하였다. 慣用句는 '둘 以上의 단어나 어구의 결합이 항상 습관적으로 쓰이고 독특한 意味를 나타내며 擬聲語, 擬態語, 俗談, 比喩語, 俗語 등으로 구분되는 語句'이다. 特徵을 살펴보면 構成要素의 結合이 特殊하고 不規則(非文法的)的이며, 意味가 固定的이고, 그 자체가 하나의 단어에 속하며, 旣製品性이란 性格을 가지고 있다.

硏究方法으로는 身體 語彙 分類 중에서도 실생활에서 가장 사용 빈도수가 높은 身體 部位를 手足部(手, 足), 頭部(目, 鼻, 口, 耳, 顔, 頭, 首), 胴體部(腹, 胸, 腰)로 나눈 뒤, 각각의 身體關聯 慣用句를 韓・日 兩國語가 同一한 慣用句, 韓・日 兩國語가 同一하지 않은 慣用句, 韓國語에만 있는 慣用句, 日本語에만 있는 慣用句 등의 4가지 項目으로 細分化하여 構成要素 및 意味論的 差異를 中心으로 對照 分析하였다. 그 結果를 各 身體 部位別로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1) '손(手)'은 손이 갖는 機能에 따라 '수단・방법・기량・계략・일・수리・솜씨・폭력・수고・관계・부탁' 등의 다양한 意味로 폭넓게 실생활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兩國語에 있어서 共通點은 '수단・방법・관계・영향' 등이 있고 韓國語에서는

‘폭력’의 意味가 많고 日本語에는 ‘솜씨・기량’의 意味가 많다는 特徵이 있다.

(2) ‘발(足)’은 주로 몸을 지탱하거나 이동을 하는 機能을 하고 이에 따라 ‘관계・관여・개입・기반・발판・기술・재주・보조・협조・손실・적자’ 등의 意味로 사용되고 있다. 共通點으로는 발이 移動하는 器官임에 따라 ‘교통수단・관계’와 관련된 表現들이 있고, 日本語에는 ‘금전・적자’를 意味하는 表現도 있다.

(3) ‘눈(目)’은 韓・日 兩國語에서 가장 많은 身體 慣用句로서 사물을 보는 機能에 따라 ‘안목・분별력・관심・주의・자각・시선・기쁨・놀람・노여움・감동・질책・만족・불만’ 등 다양한 意味로서 사용되고 있다. 兩國語의 共通點으로는 ‘死・生’이 있는데 韓國語에는 ‘死’, 日本語에는 ‘生’을 意味하는 表現이 있다.

(4) ‘코(鼻)’는 코의 외모 및 냄새를 맡는 機能에 따라 ‘호흡・고집・냉소・경멸・자랑・자만・자존심・무시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日本語에는 자신감, 자만심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고 韓國語에서는 코의 一部를 가리키는 단어가 ‘코끝’, ‘콧날’, ‘콧대’ 등 여러 개 있지만, 感情이 나타나는 慣用句는 많지 않다.

(5) ‘입(口)’은 ‘먹다’, ‘말하다’의 機能을 중심으로 ‘언행・경박・경率・多辯・신중・개입・함구・침묵・누설・언쟁・기쁨・불쾌’ 등의 意味로 사용되어지고 있고, ‘言行’의 意味로 사용될 때는 日本語와 韓國語 모두 마이너스적 이미지로 사용된다.

(6) ‘귀(耳)’는 듣는 機能을 바탕으로, 주로 ‘듣는 사람의 태도’에 주안점을 두고 比喩되는 表現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주의・관심・강조・附和雷同’ 등의 意味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7) ‘얼굴・낯(顔)’의 境遇, 사람과 사람이 대할 때 가장 먼저 시선이 집중되는 部分으로 ‘체면・평판・출世・면목・태도・입장・기쁨・슬픔・걱정・놀람・부끄러움・공포’ 등의 意味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8) ‘머리(頭)’는 身體의 가장 위 部分에 位置하고 있다는 것과 頭腦가 있어서 사고와 판단을 지시하는 역할, 또는 머리를 보호하는 머리카락 등 ‘머리(頭)’의 位置와 機能의 特徵에 의해 ‘間接的・抽象的’으로 表現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심리・태도・현상・사고・정신’ 등의 意味로 주로 사용된다.

(9) ‘목(首)’은 人間에게 있어서 가장 重要한 部位인 머리와 몸통을 잇는 線이고

이와 같은 역할에서 생명 그 자체의 상징처럼 認識되어져 왔으며, 이와 관련하여 「목」이 맡고 있는 주된 개념은 兩國語에 共通的으로 사람의 地位나 位置와 관련이 깊었다. '의문・의심', '찬부'의 意味가 兩國에서 共通的으로 많이 比喩되어 사용되어 지고 있고, 또 다른 意味로는 '개입・관여・대두・소멸・과시・강조' 등에 比喩가 되고 있다.

(10) '배(腹)'는 [胴體部]의 아랫部分에 該當하며, 그 自體를 가리키기보다는 그 내부에 있는 장기들과 관련된 表現으로 쓰인다. 주로 '내심・본심・度量・배짱・출산・출생・결심・각오・질투・질시・母胎・私心・성냄・불쾌・분노' 등의 意味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11) '가슴(胸)'은 特定한 器官이라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어떤 一定한 部分으로서의 部位이며, 身體上의 명확한 機能을 딱 잘라 말할 수 없고 주로 感情과 關聯된 '기쁨・슬픔・유쾌・불쾌・걱정・불안・감동・흥분・안심・괴로움・놀람' 등의 意味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12) '허리(腰)'의 機能 내지, 역할이라고 하면 우선 무엇보다도 身體를 지탱해 주는 기둥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身體의 움직임이나 자세와 직접 관계되는 部位이기도 하다. 주로 '기세・기질・웃음・생활・생계・의지・자세・안정・움직임' 등의 意味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結果的으로 韓國과 日本은 같은 한자권이며, 매우 유사한 언어체계라는 共通點은 가지고 있으나, 앞서 분석한 표에도 나와 있듯이 同一한 意味로 쓰이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慣用句가 더 많았고, 韓國語 慣用句는 대부분 직접적이고 직설적이며 강하고 솔직한 表現들이 많은 반면, 日本語 慣用句는 같은 意味라도 간접적이고 모호하며 우회적인 表現들이 대부분이었다. 이처럼 身體 慣用句는 身體器官이 담당하고 있는 機能에서 시작하여 다양한 개념으로 확대되어 일상의 언어생활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지만 직접적인 意味를 나타내기보다는 그 나라의 전반적인 背景이 흡수되어 있는 語句이기에 日本語를 배우는데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部分이다.

본 論文은 身體語彙와 構成形式을 基準으로 韓國語와 日本語의 身體 慣用句의 共通點과 差異點에 焦點을 두어 考察하였다. 이를 통해 日本語 학습자들이 자연스러운 日本語를 驅使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그러나 身體語彙 慣用句에 限하지 않고, 그 밖의 日本語 慣用句와 俗談을 중심으로 연구하여 일본어 학습자의 학습동기 유발과 교육적 효과를 위한 일본어 어휘의 학습방법 및 교육방법에 관한 연구는 차후의 과제로 남긴다.

〈參 考 文 獻〉

—學位 및 學術紙 揭載 論文—

郭大基(1994), 「日本語教育における慣用句」, 『東萊女子專門大論文集』13輯, 東萊女子專門大學校.

権益湖(1998), 「身體慣用句의 考察」,『日語日文學』9號, 大韓日語日文學會.

権益湖(2001),「韓国語の中に見られる日本語系慣用句について」,『東アジ日本語教育・日本文化研究』, 東アジア日本語教育・日本文化研究学会.

権益湖(2006), 「韓・日 兩國 身體語彙 慣用語의 比較對照 研究」, 忠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 論文.

金槿子(2005), 「韓・日 慣用句 比較研究; 韓日 初等學校 國語教科書를 中心으로」, 中央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金松熙(2004),「韓・日 慣用句의 比較研究 ; 身體語彙 慣用句를 中心으로」, 朝鮮大學校 教育 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金顯淑(1992), 「日本語 慣用句에 關한 研究 ; 身體語彙를 構成要素로한 慣用句를 中心으로」, 淸州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朴昞成(2000),「韓・日 慣用句 對照研究 ; 身體 慣用句를 中心으로」, 東國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朴靑國(1986), 「韓・日 慣用語句 比較研究」, 建國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안경화(1987), 「韓國語 熟語의 類型에 대한 分析的 研究」, 서울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尹召媛(2004), 「韓・日 身體語彙 慣用句의 比較分析; 「머리」部分의 눈, 입, 귀를 中心으로」, 漢南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윤소희(1986), 「韓國語 익은말에 대하여」, 연세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李恩周(2000), 「韓・日 兩언어의 比喩表現 比較研究; 慣用句를 中心으로」, 慶尙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李恩姬(1992), 「身體語彙에 關한 慣用句」, 『日本學語叢』, 正訓出版社.

趙誠訓(2002), 「身體語彙慣用句의 韓・日 對照研究 ; 8가지 感情에 의한 分類를 中心으로」, 京畿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黃希榮(1978), 「韓國 慣用句 研究」, 『省谷論叢』9집.
許錫(1989), 「韓國語 慣用句 研究」, 仁荷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中村明(1985), 「慣用句と比喩表現」, 『日本語学』1月号, 明治書院.
芳賀矢一(1969),「身体に關する言い回し」,『學生』, 富士房.
星野命(1976),「身体語彙による表現」,『日本語の語彙と表現』, 大修館.
村木新次郎(1985), 「慣用句・機能動詞結合・自由な語結合」, 『日本語學Vol.4-1』, 明治書院.
도쿠나가 이즈미(1999), 「韓國語와 日本語의 身體語彙 慣用句 對照 研究 ; 感情表現을 中心으로」서울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森田良行(1990),「慣用的言い方について」,『日本語学と日本語教育』,凡人社.
横山辰次(1975), 「語の慣用句」, 『文化庁 国語シリ-ズ(Ⅷ)』, 教育出版.
和田節(1969),「からだことば考」,『思想の科学』94, 思想の科学社.

—單行本 및 辭典類—
김인규(1995), 『日本語 慣用語彙』, 동양문고.
김종택(1971), 『國語 意味論』, 螢雪出版社.
김학헌(1984), 『엣센스 日本語 慣用語辭典』, 民衆書林.
남영신(1997), 『우리말분류대사전』, 성안당.
박영준・최경봉(1996), 『慣用語 辭典』, 태학사.
서울大學校 東亞文化研究所(1984), 『國語國文學辭典』, 新舊文化社.
이기문(1989), 『새國語辭典』, 東亞出版社.
李明玉(2007), 『日本語と韓國語の慣用表現の差異』, 笠間書院
이희승(1977), 『國語大辭典』, 民衆書林.
유은경(2007), 『유래로 배우는 日本語 慣用句』, 新論社
林八龍(2004), 『韓・日 身體語彙 慣用句의 對照研究』, 제이앤씨.

金田一春彦 外(1978), 『学研国語大辞典』, 學習研究社.

国語学会(1980), 『国語学大辞典』, 東京堂.

白石大二(1978), 『国語慣用句典』, 東京堂.

松村明(1971), 『日本文法大辞典』, 明治書院.

宮地裕(1982), 『慣用句の意味と用法』, 明治書院.

安田吉實・손락범(1992), 『엣센스 日韓辭典』, 民衆書林.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일어교육전공	학 번	20058043	과 정	석사
성명	한글 : 윤 영 신 한문 : 尹 泳 信 영문 : Yun Young-Sin				
주소	광주 광역시 동구 지산2동 342-111 8/3				
연락처	(062)228-8679, 011-9613-8679 E-MAIL : dudtls80@naver.com				
논문제목	한글 : 韓國語와 日本語의 慣用句 比較硏究 - 身體語彙 慣用句를 中心으로 - 영문 : A Comparative Study of Korean and Japanese Idioms - Focusing on Physical Vocabulary Idioms -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 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2008 년 1 월 일

저작자 : 윤 영 신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